

BO* M

SEOUL
2013

3*22-4*18

SEOUL
2013

3*22-4*18

2

3*22-

FESTIVAL
BO* M

FESTIVAL
BO* M

FESTIVAL
BO* M

SEOUL
2013

3*22-4*18

SEOUL
2013

3*22-4*18

SEOUL
2013

3*22-4*18

SEOUL
2013

3*22-4*18

페스티벌 봄 2013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L 2013	SEOUL 2013	SEOUL 2013	SEOUL 2013
3*22-4*18	3*22-4*18	3*22-4*18	3*22-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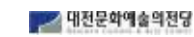
페스티벌 봄은 현대무용, 연극, 미술, 음악, 영화, 퍼포먼스 등 현대예술 전 장르 간의 상호교류를 근간으로 매년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국제다원예술축제이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페스티벌 봄은 국내외 26개 현대예술 작품을 28일간 서울 각지에서 선보인다. 페스티벌 봄은 '새로운 시도와 형식'을 발굴하고 제작하며 전파하는 역동적인 현대예술제로서, 한국을 21세기 현대예술의 중심점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Festival Bo:m is an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arts festival, annually presenting works of artists from all around the world. Festival Bo:m bases itself on the creative interactions between all genres of contemporary art such as contemporary dance, theatre, fine arts, music, film and performance. This year, in its 7th edition, Festival Bo:m will present 26 works of most innovative contemporary arts for 28 days in various venues of Seoul. As Korea's leading arts festival, which pioneers, produces, and promotes 'new frontiers and forms', Festival Bo:m aims to play a critical role in establishing Korea as a dynamic platform of 21st century contemporary art.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L 2013	SEOUL 2013	SEOUL 2013	SEOUL 2013
3*22-4*18	3*22-4*18	3*22-4*18	3*22-4*18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L 2013	SEOUL 2013	SEOUL 2013	SEOUL 2013
3*22-4*18	3*22-4*18	3*22-4*18	3*22-4*18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L 2013	SEOUL 2013	SEOUL 2013	SEOUL 2013
3*22-4*18	3*22-4*18	3*22-4*18	3*22-4*18



페스티벌 봄 2013
국제다원예술축제
2013년 3월 22일-4월 18일

장소-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국립극단 소극장 판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아트하우스 모모
서강대학교 메리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송원아트센터
HanPAC 아르크예술극장 대극장
필름포럼

주최- (사)페스티벌 봄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협력 기관- (재)국립극단

국립현대미술관
강동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독일문화원
독일외무부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비엔나 페스티벌 주간
성남문화재단
송원아트센터
스위스 문화기금
스위스 예술위원회 프로헬베티아
아트하우스 모모
에이타입컴퍼니
이자요이 오시다마치 스튜디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한 스위스 대사관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주한프랑스문화원
캐나다예술위원회
헬로우뮤지움

디렉터- 김성희
사무국장- 성용희
프로덕션- 김신우, 이경후
행정/코디네이터- 신진영
홍보 마케팅 팀장- 성민경
커뮤니케이션- 김홍
홍보/티켓- 배성림
코디네이터- 정선경
프로덕션 어시스턴트- 강운지, 김진우
운영- 김서연, 김양희, 김용범, 이대환, 박소희
촬영- 강한나, 신유란
텍스트- 서현석
디자인- 슬기와 민
기술 감독- 김지명
무대 감독- 김남조, 김동석, 김태진, 정광진, 조은진
무대 제작- 타프, 김동경
음향 감독- 오영훈
음향 조감독- 정새롬
조명 감독- 이영욱
조명- 류한경, 김익현
영상 감독- 비주얼 케이, 우기하
서버 지원- (주)컬처닷컴

Festival Bo:m 2013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Arts Festival
2013.3.22-4.18

Venues-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Theater Pan
Doosan Art Center Space111
Arthouse MOMO
Sogang University Mary Hall
Seongnam Arts Center Opera House
Songwon Arts Center
HanPAC Arco Arts Theater Main Hall
Film Forum
Organized by- Festival Bo:m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Cooperation with-
Arthouse MOMO
a-Type cOmpanY
Daejeon Culture & Arts Center
Doosan Art Center
Embassy of Switzerland
Embassy of the Republic of Portugal in Korea
Gangdong Arts Center
Goethe-Institut Korea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Hello Museum
Institut Français de Corée du Sud
Italian Cultural Institute-Seoul
Izayoi Yoshidamachi Studio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Pro Helvetia-Swiss Art Council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Seoul Art Space Mullae
Songwon Arts Center
Swiss Cultural Fund Korea
The Canada Council for the Arts
The Federal Foreign Office of Germany
The Japan Foundation, Seoul
Wiener Festwochen

Director- Kim, Seong Hee
Director Assistant- Sung, Yonghee
Production- Kim, Shinu / Lee, Kathy Kyunghoo
Administration- Shin, Jinyoung
PR/Marketing Manager- Sung, Min Kyung
Communication- Kim, Hong
PR/Tickets- Bae, Sung Lim
Coordinator- Jung, Sunkyung
Production Assistant- Kang, Yoon Zee / Kim, JinU
Staff- Kim, Seo Yeon / Kim, Yang Hee / Kim, Yong Beom / Lee, Dae Hwan / Park, Sohee
Documenting- Kang, Hanna / Shin, Yuran
Text- Seo, Hyun-Suk
Design- Sulki and Min
Technical Director- Kim, Jimmy (Jimyung)
Stage Manager- Kim, Namjo / Kim, Dongsuk / Kim, Taejin / Jung, Kwangjin / Jo, Eunjin
Set & Stage- Kim, Dong-Kyung (TAF Scenograph Studio)
Sound Supervisor- Oh, Younghoon
Sound Assistant- Jung, Saerom
Light Supervisor- Lee, Younguk
Light- Ryu, Han Kyung / Kim, Ik Hyun
Video/Media Supervisor- Woo, Kiha (visualkei)
Server- Culture Dot Com co. ltd.

인사말

2013년 3월, 페스티벌 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제 개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해 동안 진보적이고 다채로운 작품들을 통해 전세계 현대예술의 주요한 흐름을 앞장 서서 소개해 온 페스티벌 봄은 이미 아시아의 현대예술계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극, 무용, 퍼포먼스 등의 공연예술과 미술, 영화 등의 시각예술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작품들을 약 한 달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로메오 카스텔루치와 윌리엄 포사이스 등 이미 전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예술가들의 공연이 올려질 예정으로 벌써부터 관객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페스티벌 봄이 꾸준히 발굴해 온 한국과 아시아의 젊은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제작, 공연되어 관객들의 문화적 안목과 지평을 넓혀주리라 생각합니다.

다채로운 작품들뿐 아니라 예술가와 관객들의 다양한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활발한 흐름을 전달해 온 페스티벌 봄을 통해 보다 많은 관객들이 문화예술의 창조적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권영빈

매년 봄, 마치 한 해의 시작을 알리듯 꾸준히 우리에게 신선하고 창조적인 작품들을 소개해 온 페스티벌 봄이 벌써 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특정 장르에 구속 받지 않고 동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꾸준히 갈고 닦아 온 국내외의 혁신적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올 봄에도 어김없이 국립극단, 두산아트센터, 서강대학교 메리홀, 성남아트센터, 아트하우스 모모, HanPAC 아르크예술극장을 비롯한 서울 곳곳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페스티벌 봄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다원예술축제로서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독창적인 시선을 제시하는 국내외 아티스트들을 초청하여 국내 관객들에게 매해 다채롭고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올해 한국을 비롯하여 유럽, 미국, 일본, 남미, 싱가포르 등지에서 초청된 26개의 현대예술 작품들 역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들과의 새로운 소통을 시도할 것입니다.

3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다양한 예술형식과 아티스트,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장을 열어 줄 2013 페스티벌 봄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지속적인 실험정신과 꾸준한 성장으로 서울의 문화예술환경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6- 오카다 토시키 / 첼피쉬 Okada Toshiki / chelfitsch	8:00	3:00/8:00	3:00	8:00	8:00	8:00																								
8- 로메오 카스텔루치 Romeo Castellucci		5:00	3:00																											
10- 마리오 가르시아 토레스 Mario Garcia Torres				7:00	7:00																									
12- 다니엘 콕 Daniel Kok					8:30	8:30																								
14- 서영란 Yeong-Ran Suh							7:00	7:00																						
16- 재커리 오버젠 Zachary Oberzan							8:30	8:30																						
18- 홍성민 Sungmin Hong									3:00	3:00																				
20- 김황 & 사라 마네테 & 마르코스 시모즈 Hwang Kim & Sara Manente & Marcos Simoes									5:00	5:00																				
22- 남동현 Dong-Hyun Nam											7:00	7:00																		
24- 노경애 Kyungae Ro											8:30	8:30																		
26- 김보용 Voyon Kim													7:30																	7:30
28- 박민희 Minhee Park														7:00	7:00															
30- 히라타 오리자 Hirata Oriza														8:30	8:30															
32- 제롬 벨 & 극단 호라 Jérôme Bel & Theater HORA																3:00	3:00													
34- 정은영 siren eun young jung																5:00/7:00														
36- 야마시타 잔 & 안애순 무용단 Yamashita Zan & Ahn Aesoon Dance Company																	8:30	8:30												
38- 포사이스 컴퍼니 The Forsythe Company																				8:00	8:00	8:00	5:00	5:00						
40- 앙리 살라 Anri Sala																					7:30							7:30		
42- 시징맨 Xijing Men																														
44- 영진 리 Young Jean Lee																					8:00	8:00	3:00	3:00						
46- 서현석 Hyun-Suk Seo																						5:00/7:00	5:00/7:00	5:00						
48- 남화연 Hwayeon Nam																							1:00	1:00	7:00	7:00				
50- 장현준 Hyun-Joon Chang																												7:00	7:00	
52- 하룬 파로키 Harun Farocki																						9:00						9:00		
54- 정희영 Hee-Young Chung																														
56- 마말리안 다이빙 리플렉스 The Mammalian Diving Reflex																														8:30
58- 로메오 카스텔루치-스크리닝 Romeo Castellucci-Screening	3.20	3.21																												
	W	T																												
	7:00	4:00																												

60- 부대 행사
Events

61- 공연 장소
Venues

64- 티켓 정보
Ticket Info.

오카다 토시키 / 첼피쉬

Okada Toshiki / chelfitsch

현위치(現在地)

Current Location

‘마을’이라 불리는 곳. 일곱 명의 여자. 이상한 구름. 그리고 곧 마을이 망할 거라는 소문...

사소한 언어와 제스처를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독특한 안무/연출법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 온 오카다 토시키의 2012년 신작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작품보다 ‘평범하다’.

이 작품이 “오카다 최고의 작품”이라는 찬사와 더불어 일본의 연극계에 충격을 던진 이유는, 바로 형식적인 ‘평범함’ 때문이다. 오카다 자신의 말대로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고 꽤 단순하다.” 이 ‘평범한 연극’의 의문스러움은 적막의 행간으로부터 스며 나온다.

동화 같기도 하고 악몽 같기도 한 이 평평한 ‘SF’는 그 평이함을 관객에 대한 질문으로 응집시킨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카다는 이 작품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의 현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한다. 정신의 심연을 뒤흔드는 불안을 다루기 위해 오카다가 새롭게 선택한 전략은 ‘허구’다. 낯고 왜소하고 작위적인, 그러나 뼈속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그런 ‘허구’. 그것은 현실과의 충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오카다의 새로운 목표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Chelfitsch and Okada Toshiki had embarked on a new and rather significant chapter. The Japanese society had been impacted by the 3.11 earthquake and its aftermath of the nuclear power plants accident. Okada himself had also been affected, and his change in the attitudes towards the theater has been reflected undoubtedly in this work. Ominous clouds and rumors say that the village will be damned. Would you believe it or not? Would you change under this circumstance or not? The story tells, in a detached tone, the anxiety, conflict, belief and hope of the seven women who live in the place called ‘village’, using science fiction as its device.

3.22 [Fri] 8pm
3.23 [Sat] 3pm/8pm
3.24 [Sun] 3pm
3.25 [Mon] / 26 [Tue] / 27 [Wed] 8pm
Doosan Art Center Space111

Running time 100 min

3.22 [금] 8pm
3.23 [토] 3pm/8pm
3.24 [일] 3pm
3.25 [월] / 26 [화] / 27 [수] 8pm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공연 시간 100분



Design © Gento Matsumoto



Organized by: Festival Bo:m, Doosan Art Center / Executive Produced by: chelfitsch / Co-Produced by: Doosan Art Center / Associate Produced by: precog / Playwright and Director: Toshiki Okada / Performers: Luchino Yamazaki, Yukiko Sasaki, Saho Ito, Kei Namba, Mari Ando, Izumi Aoyagi, Azusa Kamimura / Set Designer: Shusaku Futamura / Music: Sangatsu / Dramaturg: Sebastian Breu / Stage Director: Koro Suzuki / Sound Director: Norimasa Ushikawa / Lighting Director: Tomomi Ohira / Video Director: Shimpei Yamada / Producer: Akane Nakamura / Company Manager: Tamiko Ouki / Special thanks: Steep Slope Studio / Translator: Ishikawa Juri, Hongyie Lee / Tour Coordinator & Subtitle Operator: Hongyie Lee / Stage Design Coordinator: Yunsoo Lee
GENZAICHI (Current Location) was commissioned and produced by KAAT (Kanagawa Arts Theater) Japan, and had world premiere at KAAT on 20th April, 2012.
본 공연은 '2013 페스타빌 봄'과 '두산인문극장 2013'의 공동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This performance is presented by Festival Bo:m and Doosan Humanities Theater Series of Doosan Art Center.

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얼굴의 컨셉에 대하여

어떤 주제가 나를 쓰러뜨려야 한다. 나는 연극을 믿지 않고, 나조차 믿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고 싶다. 내 궁극적 모순의 지점을 끝까지 탐색하고 싶다. — 로메오 카스텔루치

아버지는 대변을 통제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다. 기저귀 밖으로 흐르는 변을 설 새 없이 치우는 아들은 그만큼 강해져야 함을 통감한다. 수치와 사랑, 좌절과 희생, 비극과 익살의 경계가 얇아질수록 부조리는 커진다. 그 신랄함은 태연하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한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삶의 고통스런 미스터리를 지켜봐야 한다. 이는 카스텔루치가 직면해 온 '비극'의 실체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징벌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듯 우뚝 서 있는 하나의 거대한 초상에 의해 가중된다.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예수 초상이다. 그것에 집행되는 하나의 '연극적' 행위는 극단의 질문을 우리에게 전가한다. 우리는 금기된 것에 대해 얼마나 여유로울 수 있는가? 스스로의 나약함에 대해 얼마나 관용적일 수 있는가?

카스텔루치에 있어서 연극은 삶의 복제도 재현도 아니다. 삶의 가치와 규칙을 넘어서는 상징적 영역이다.

3.23 [토] 5pm
3.24 [일] 3pm
HanPAC 아르크오예술극장 대극장

공연 시간 약 50분

On the Concept of the Face,
Regarding the Son of God

Once again, Romeo Castellucci turns to an apical icon of the human history: Jesus, with whom the time too confronts itself in most of the world. Here the picture of Jesus starts from the Renaissance painting and particularly in the topic moment of the Ecce Homo. In this precise instant, tradition states that Christ looks the spectator into the eyes, with a powerful effect of dramatic involvement in the questio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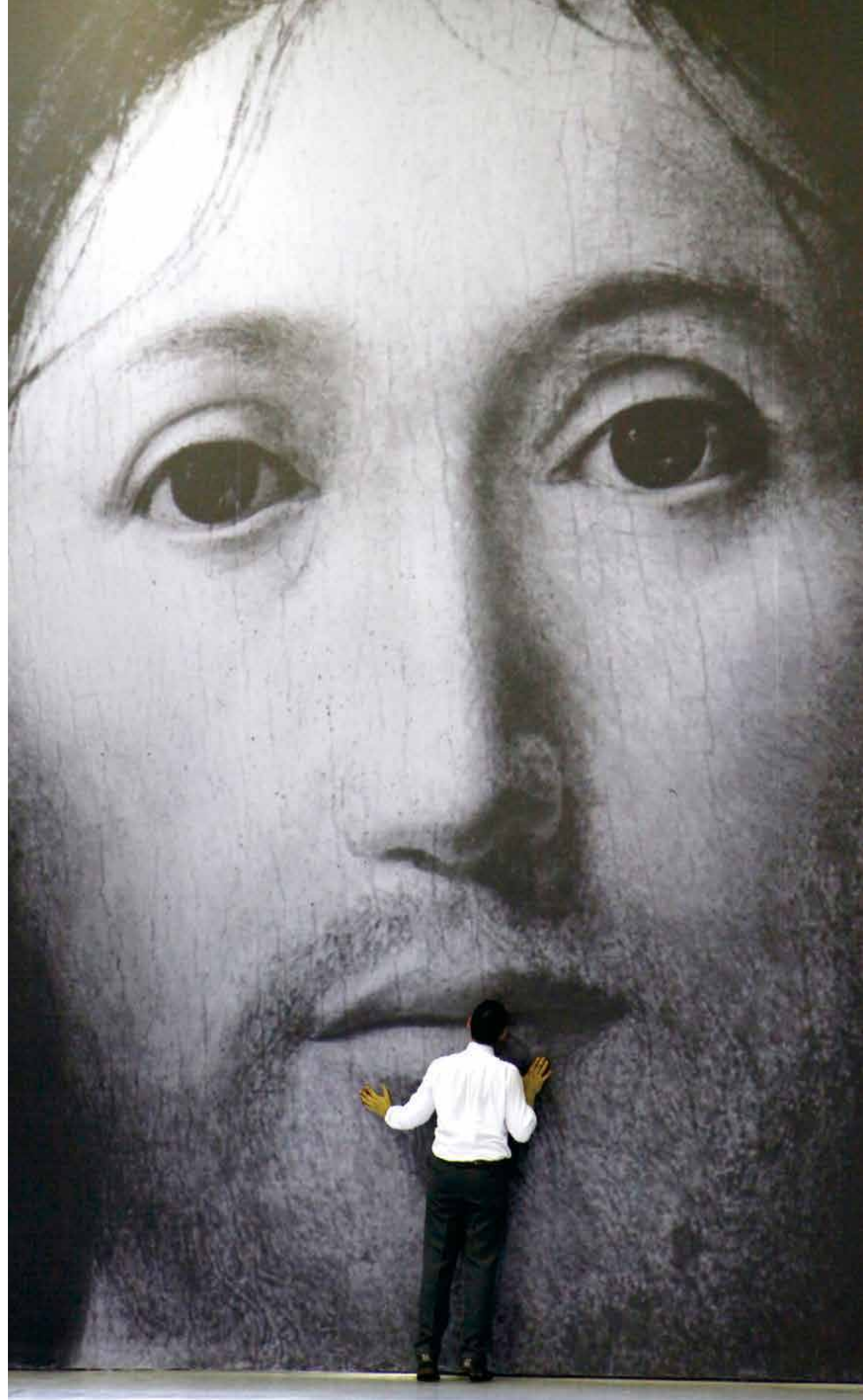
「On the Concept of the Face, Regarding the Son of God」 is a performance with some of Societas' theater's fundamental ideas: religion not as a mystical or theological manifestation, but as part of that stock of primary images and practices the theater draws on. A vocabulary of diffuse symbols and signs which can form the basis for multiple, contradictory and even embarrassing relationships is launched at the spectator, who becomes the reagent of this universe.

3.23 [Sat] 5pm
3.24 [Sun] 3pm
HanPAC Arko Arts Theater
Main Theater

Running time about 50 min

Conceiving and staging: Romeo Castellucci / Music: Scott Gibbons / With: Gianni Piazzi, Sergio Scariatella / Together with: Dario Boldrini, Vito Matera and Silvano Voltolina / Collaboration to the staging: Giacomo Strada / Object's realisation, Istvan Zimmermann, Giovanna Amoroso / Sound technician: Marco Canali / Light technician: Luciano Trebbi / Props: Vito Matera / Management: Gilda Biasini, Valentina Bertolino / Administration: Michela Medri, Elisa Bruno, Simona Barducci / Economic advise: Massimiliano Colli / Executive Producer: Societas Raffaello Sanzio / In Coproduction with: Theater der Welt 2010; deSingel international arts campus, Antwerp; Théâtre National de Bretagne, Rennes; The National Theatre, Oslo Norway; Barbican London and SPILL Festival of Performance; Chekhov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Moscow; Holland Festival, Amsterdam; Athens Festival; GREC 2011 Festival de Barcelona, Festival d'Avignon;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DIALOG Wroclaw, Poland; BITEF (Belgrade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Foreign Affairs | Berliner Festspiele 2011; Théâtre de la Ville, Paris; Romaeuropa Festival; Theatre festival SPIELART München (Spiel-motor München e.V.), Le-Maillon, Théâtre de Strasbourg, Scène Européenne; TAP Théâtre Auditorium de Poitiers, Scène Nationale; Peak Performances @ Montclair State (US) / In collaboration with: Centrale Fies, Dro / Extras: Yoon Ji Ko, Sae Yeon Kim, Youn Mi Kim, Chae Eon Han, Sang Hyun Kim, Seong Hae Baek, Gi Hyeok Lee, Hyun Sung Joo, Hyun Hoo Joo, Dong Wook Sung, Seung Chan Yang, Dong Yeob Han
Supported by: Italian Cultural Institute—Seoul

Photo © Klaus Lefebvre



당신은 눈을 본 적이 있나요?

‘원호텔’은 정치적 혼란을 앞둔 1970년대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장기 체류지로 유명했던 곳으로, 이탈리아의 아티스트 알리기에로 보에티는 이곳에 머물면서 ‘카불의 원호텔’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적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렇다.

90장의 슬라이드와 내레이션으로 이루어진 이 시청각 에세이에서, 마리오 가르시아 토레스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 장소, 그리고 보에티의 묘연한 행적을 추적한다.

남아 있는 사진과 인터넷 정보를 조합해 보고, 존재하지 않는 곳에 가상의 팩스와 메일을 보냄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긴 공백을 넘어 예술사의 한 미스터리를 푸는 탐색은 서구의 미디어에 비춰지는 아랍의 이면에 존재하는 현실의 단상들에 이른다.

90장의 슬라이드와 토레스 자신의 목소리는 간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과 정치, 기억과 재현의 복잡한 관계를 풀어나간다. 탐정의 추리력과 시인의 상상력은 이미지 너머의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사색의 단서들을 추출해낸다. 이는 사진의 존재론적 특성을 사색하는 과정이자, 토레스 본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여정이기도 하다.

‘도큐멘타 13’에서 보에티가 1972년에 ‘도큐멘타 5’에 출품하기 위해 제작했던 (그러나 도큐멘타 측의 거절로 전시가 무산되었던) 실제 작품과 함께 소개된 이 작품이 페스티벌 봄에서는 보다 영화적인 맥락으로 되살아난다.

3.25 [월] 7pm
3.26 [화] 7pm
국립극장 소극장 판

공연 시간 59분

Have You Ever Seen the Snow?

「Have You Ever Seen the Snow?」 is an audio-visual essay that narrates the artist's search for the One Hotel, a hostel run by the Italian artist Alighiero Boetti during the 1970's and that was deemed destroyed. While navigating the streets of Kabul from his desk in Los Angeles, Mario Garcia Torres contemplates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someone else's photographs of a place to which he had never been, and the story of an artist he had never met.

3.25 [Mon] 7pm
3.26 [Tue] 7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Pan Theater

Running time 59 min



「Have you Ever Seen the Snow?」 © Mario Garcia Torres, 2010

「Have You Ever Seen the Snow?」 (2010) / Color and black and white slide show, 59 min. / Courtesy of the artist and Jan Mot, Brussels, Mexico City / Translation: Kathy Kyunghoo Lee

Q&A

다니엘 콕은 아이디어의 태동에서부터 공연의 완성까지 전적으로 관객의 생각에 복종한다. 「Q&A」에서 그는 민주주의적 문화라는 개념에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관객들이 '현대 무용 공연'에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지 물어본 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연을 디자인해나간다. 당신을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공연의 원칙이 상업적 가치의 증대가 아닌 아티스트와 관객과의 상호 협력이라는 이러한 제안이 과연 소비문화에서 가능한 것인가? 더불어 관객을 제한하는 사회적 규약과 공연의 제약 그리고 이에 반하는 욕망의 정치와 관객의 발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이 공연은 비단 공연에 대한 메타적인 실험일 뿐만 아니라 공연의 정치경제학과 민주주의와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3.26 [화] 8:30pm

3.27 [수] 8:30pm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공연 시간 60분



Q&A

From the moment he has an idea to the completion of the final product, Daniel Kok subordinates his performance to the expectations of the audience. In 「Q&A」, he turns the idea of democratic culture on its head and conducts field research through online surveys: what does a potential audience expect from a contemporary dance piece? Kok designs his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answers submitted. The guiding principle is not only enhanced commercial value, but genuine mutual attention in a spirit of partnership.

What would you like to see?

3.26 [Tue] 8:30pm

3.27 [Wed] 8:30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Running time 60 min

Research, Choreography, Performance: Daniel Kok /
Dramaturge: Lim How Ngean / Consultant 1 (Econo-
mist): Chris Ho / Consultant 2 (Sociologist): Eddie Koh /
Graphic Design: Jason Tong / Production Stage Man-
ager & Lighting Designer: Yap Seok Hui / Producer: Tang
Fu Kuen / www.diskodanny.com / Translation: Kathy
Kyunghoo Lee, Shinu Kim
Supported by: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Photo © Jason Tong



지신은 불완전하게
올라온다

춤과 소리가 무대 위로 올라오기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근대화 시기의 춤과 소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전해들은 당시의 그것은 야생적이었다. 정해진 틀이 없고 즉흥적인 춤과 소리는 늘 관객과 유동적으로 호흡하고 교감할 수 있었다. 벌렁벌렁 춤추고, 말하듯이 소리하기 위해서는 흔히 미신으로 여기는 ‘신을 받는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이러한 야생적인 형식은 타문화권의 민속 춤, 소리와도 닮아있는데, 이것 역시 춤과 소리가 시작되기 이전, 신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었다. 춤과 소리의 옛 형태에는 초자연적인 혹은 다른 정신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추적이 야생적인 개연성을 띠고 무대 위에서 퍼포머와 판소리꾼을 뚫고 예상치 못한 이미지들로 펼쳐진다. 트로트의 꺾는 소리에 감탄하는 우리의 신경망 속에, 남대문 시장 옷 파는 소리에 할머니들의 옛 소리가 느닷없이 잠재하고 있는 것처럼.

3.28 [목] 7pm
3.29 [금] 7pm
국립극단 소극장 판

공연 시간 60분

The God of Earth Comes up Imperfectly

How were dance and singing embodied before they came on stage? Dance and singing captured in the memories of those who experienced them during Korea’s modernization period carry the scent of wilderness. They did not have a fixed routine and spontaneously breathed and interacted together with the audience at all times. ‘Receiving god’, what we normally consider as superstition, was perceived as inextricable for the ability to dance fluently and to sing just as easily as one would talk. Do ancient form of dance and singing hold a key that leads us to a supernatural, transcendent state of mind?

3.28 [Thu] 7pm
3.29 [Fri] 7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Pan Theater

Running time 60 min



Photo © the artist

Choreographer: Yeongran Suh / Sori: Eunsil Noh /
Researcher: Yeongran Suh, Eunsil Noh / Subtitle: Bora
Kim / Light: Donguk Jung / Sound: Minwee Lee /
Costume: Yeongok Lim / Translation: Jooyeon Suh /
Video: Seung-Chan Woo / Photo: Sang-Hoon Ok /
Interviewee: Kyeongja Park, Shaman of Suncheon Samsu-
lyang Gut; Hyunsun Han, Student of Okjin Kong; Sueup
Kim, Restorer of Jinju Traditional Mask Dance; Dongeon
Kim, Shaman of Eastern coast Pyolshingut / Research
support from: Nomadic Artist Residence Program in
Mongolia, Arts Council Korea, artspace Donquixote,
Theater of Sand, Playtime, Culture Station 284, 2012
This show was selected as a program of ‘2012 Seoul
Art Space_Mullae, MAP(Mullae Arts Plus)’.

네 형. 기억해?

액션영화에 매혹된, 특히나 장 클로드 반담의 '킥복서'에 심취하여 캠코더로 자신들만의 리메이크까지 만든 두 어린 형제. 부모의 이혼과 이후의 혼란은 두 형제의 인생 여정을 갈라 놓았다.

20년이 지난 후, 둘은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킥복서' 원작에서처럼 두 형제는 서로에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선다. 이 익살맞은 '자전적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연극무대'와 '감옥'이라는 각자의 삶의 장으로 갈리게 된 두 사람은 공유된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의 운명을 직시한다.

그곳은 서로의 나약함을 성찰하는 진실의 장이자, 고통을 승화하는 재치의 무대이기도 하다. '싸움'은 두 형제를, 두 동떨어진 삶을 다시 결합시키는 매개가 된다.

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더 잘 이해해보려고 한다. 그 이해가 찢어진 마음을 꿰매는 실이기 때문이다.

- 재커리 오버젠

3.28목 8:30pm

3.29금 8:30pm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공연 시간 60분

Your brother. Remember?

An elaborate experiment with the concept of Before-and-After photographs, 「Your brother. Remember?」 splices and dices home videos, Hollywood film footage, and live performance. As kids in rural America, Zachary and his older brother Gator loved making parodies of their favorite films, most notably Jean-Claude Van Damme's karate opus Kickboxer, and the notorious cult film Faces of Death. Then twenty years passed. Estranged from his family, Zack returned to his childhood home to re-create these films, shot for shot, as precisely as possible...but now seen through a twenty-years lens of emotional and physical wear and tear. One brother became an actor, and one self-destructed.

Which is which? How different are these lives? Could this story have turned out the other way around?

3.28 [Thu] 8:30pm

3.29 [Fri] 8:30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Running time 60 min



Photo © the artist

Conceived, Directed, Video, Performed by: Zachary Oberzan / Light, Sound, Video Technician: Thomas Barcal, David Lang / Assistant Director & Tour Management: Nicole Schuchardt / Coproduction by: Kunstenfestivaldesarts 2010, Noorderzon Performing Arts Festival, Grand Theater Groningen and brut Wien / Translation: Kathy Kyunghoo Lee, Shinu Kim

줄리엣

Julietttttt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든 극적 장치, 심지어 로미오마저 제거하고 다섯 명의 각기 다른 줄리엣만을 무대에 올린바 있는 홍성민이 이번에는 새롭게 강화된 「Julietttttt」을 선보인다.

2010년의 ‘줄리엣’이 5명의 여배우를 5명의 대학로 연출가에게 보내서 각기 다른 줄리엣 연기를 훈련 받은 후 한 무대에 올려졌다면 2013년 새로운 버전의 「Julietttttt」은 기존에 한국에서 제작된 대표적 줄리엣을 섭외한다. 즉, 사실주의 줄리엣, 한국창작 줄리엣, 판소리 줄리엣, 뮤지컬 줄리엣 등 다양한 기존의 줄리엣들을 아카이빙하여 한국판 ‘줄리엣의 유형학’을 제시한다.

저마다 다른 무대에서 다른 연출을 받아 각기 다른 역할을 연기해 온 줄리엣들은 이 작품을 통해 작품과 연출에 의한 ‘배역’이 아닌, 여배우의 현존 그 자체로서의 생명을 얻는다. 서로 경쟁하듯 높고 낮은 목소리로 광기와 고요를 오가는 연기 속에서 시차와 여백이 파생되는가 하면, 때로는 온전한 싱크와 전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맥락은 실종되고 언어는 사운드로 트랜스된다. 오로지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들에 의해 캐릭터는 극 바깥의 공간으로 노출되고 공연의 섬세한 언어는 무의식의 심연을 배회하기 시작한다. 「Julietttttt」은 실체를 잃은 채 이미지적 표상과 청각적 텍스트로만 존재하게 되어버린 새로운 의미의 줄리엣들이 펼쳐 보이는 기이한 메타 연극이다.

수백년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베로나에서 출발된 이야기는 머나먼 번역의 여정을 거쳐 「Julietttttt」으로 공연된 후 2014년 다시 이 작품은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유럽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3.30 [토] 3pm

3.31 [일] 3pm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공연 시간 60분

In 「Julietttttt」 (2010), Sungmin Hong removed all dramatic dispositifs (even Romeo) from the classic ‘Romeo and Juliet’ and presented five different Juliets on stage. These five actors were sent to five different theater directors, each given different directions. In this new version 「Julietttttt」 Sungmin Hong attempts to cast seven representative Juliets across Korean theater scene. He presents a typology of Juliets by archiving Korea’s various existing Juliets, such as Juliet in a western realism drama, a Korean drama Juliet, a Korean traditional opera (Pansori) Juliet, a commercial musical Juliet, and so forth.

3.30 [Sat] 3pm

3.31 [Sun] 3pm

Sogang Univ. Mary Hall
Grand Theater

Running time 60 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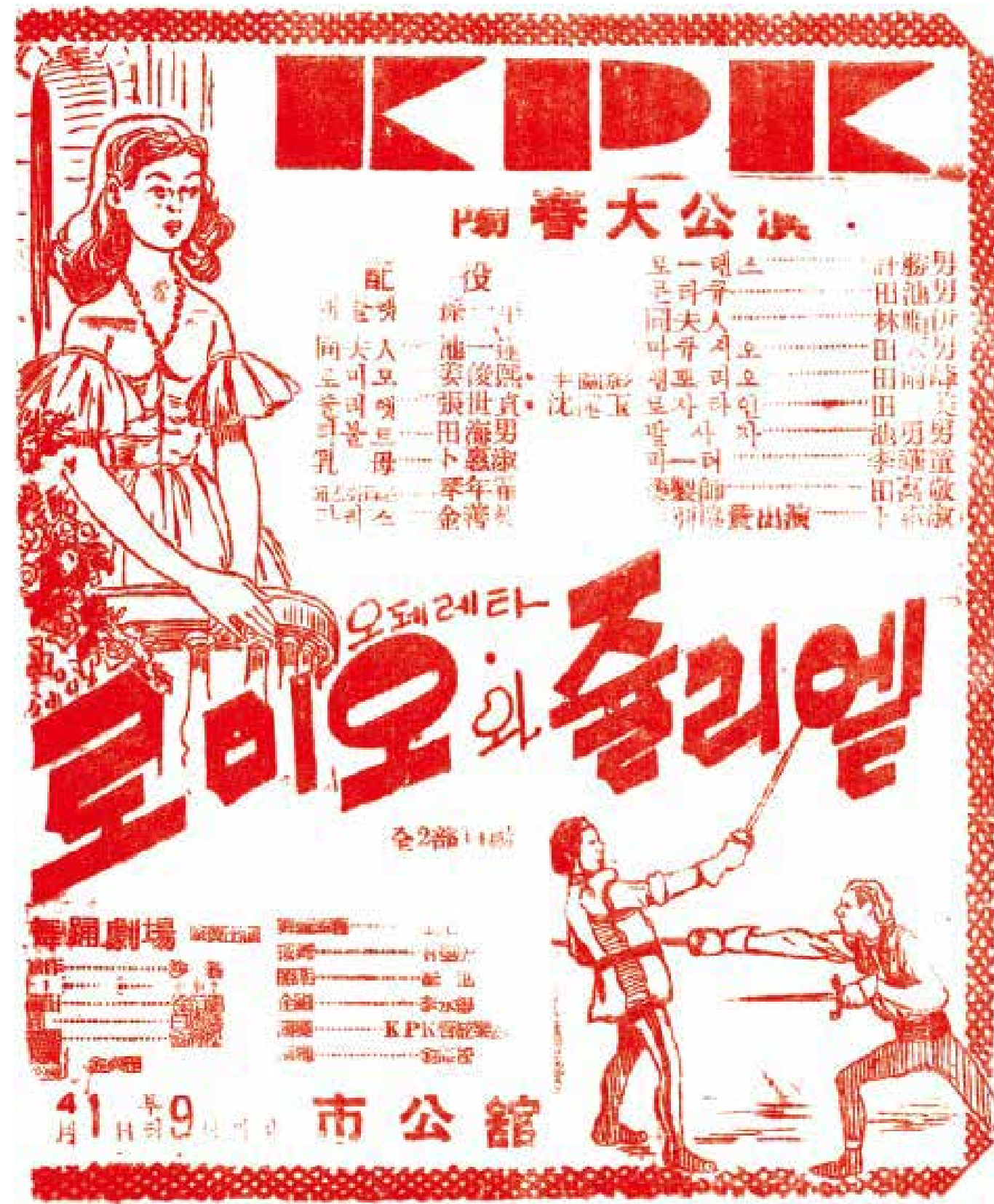


Photo © the artist

Concept and Direction: Sungmin Hong / Stage Manager: Sungsoo Han / Assistant Director: Seulhyun Kim / Make up: Jungmi Yoon / Video: Nara Shin / Performer: Aeri Hwang, Misun Kim, Boram Kim, Yoonjung Cho, Songyi Baek, SunA Kim / Co-production: Festival Bo:m, Wiener Festwochen

x: 나는 B가 좋던데. y: 나도 스물아홉이야.

x: I liked B better. y: I am 29 too.

남과 북의 특정 장소에 은밀하게 설치될 두 벌의 고성능 카메라, 마이크, 스크린 장치를 통해 x와 y는 처음으로 서로를 만나고 소통을 시도한다.

장치는 소통의 채널로 작용하는 동시에 고의적, 역설적 그리고 안무적으로 둘의 완전한 만남을 방해한다. 하지만 관객들은 실용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두 배우 사이에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을 여과 없이 목격한다.

x와 y는 첫 만남의 순간에 텔레파시를 이용해 주변의 물건들과 놀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대화를 한다. 송신자와 수신자를 번갈아 가며 가정한 채, 그들은 특정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감각적인 소통 방법이나 신체적인 접촉없이 서로에게 전송한다.

「x: 나는 B가 좋던데. / y: 나도 스물아홉이야.」는 디자인 오브젝트, 과학적 경험, 실용적인 농담 그리고 대담한 실시간 즉흥극이다.

Two sets of high spec cameras, microphones, and screening equipment are carefully installed in South and North Korea each. Through these devices, x and y first meet and attempt to communicate.

The devices function as channels of communication but at the same time, intentionally, paradoxically, and choreographically disturb the rendezvous. Yet, with the help of a transparent and practical device system, the audiences witness the entire process of this incidental interaction that occurs between the two actors.

3.30 [Sat] 5pm
3.31 [Sun] 5pm
Sogang Univ. Mary Hall
Small Theater

Running time 60 min

3.30 [토] 5pm
3.31 [일] 5pm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공연 시간 6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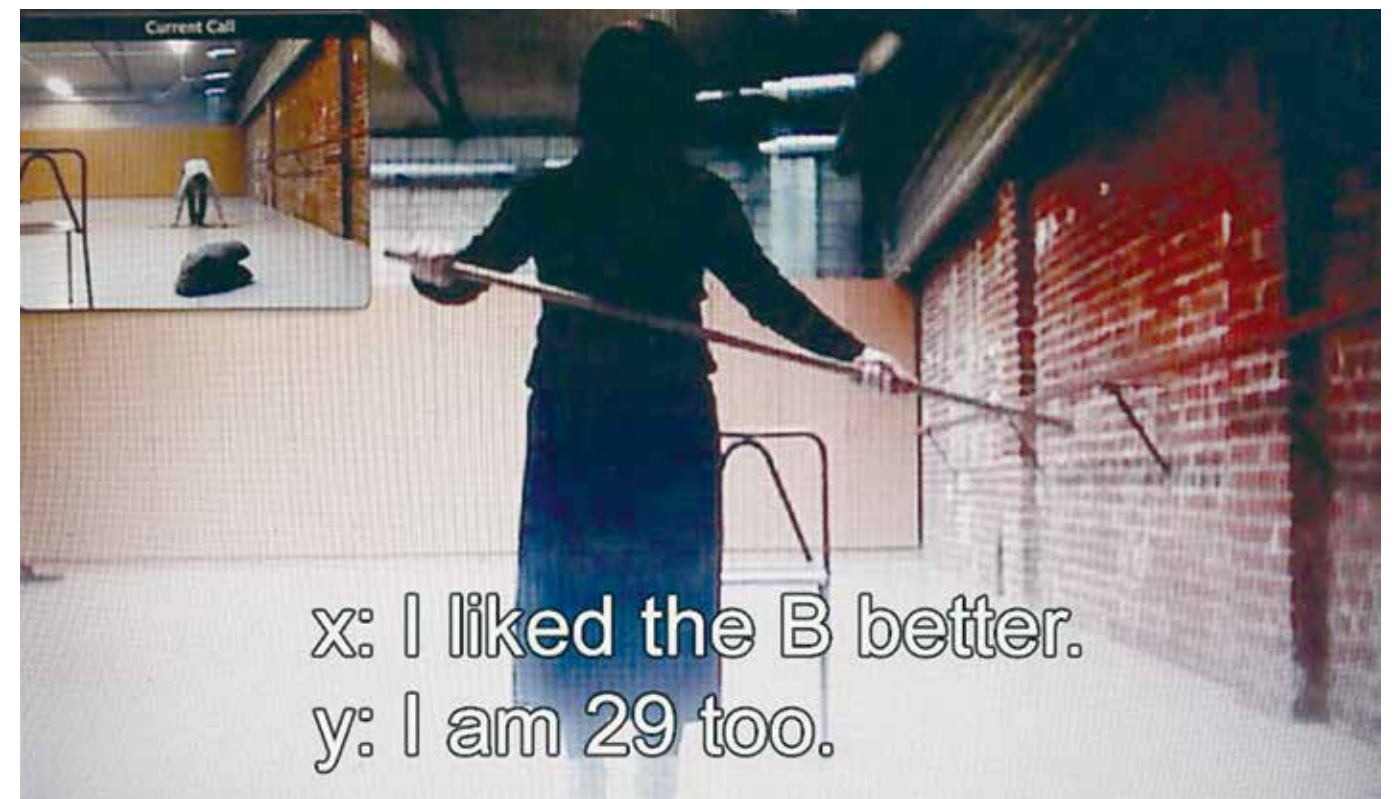


Photo © the artist



Directed by: Hwang Kim, Sara Manente, Marcos Simoes
/ Cast: Sang Yeop Yuk, Hee Jung Park and 4 more /
Producer: Joo Young Goh / Technical Director: June Kim / Translation & Production Assistant: So Hyun Jin /
Yanji Organizing: Bong Lee
Supported by: Art Council Korea, Embassy of the Republic of Portugal in Korea

양의 침묵

한화증권의 CF와 가인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한 마리 양이 공연에 출연한다면? 경기도 모처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남동현과 남양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교환적 관계를 증여적 관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양치기 소년, 남동현은 양들의 오래된 영혼을 전달하는 통역가이다. 그는 '상품'이라는 자본주의적 환영으로 철저히 은폐되었던 동물, 사물들과 대칭적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목소리를 관객과 공유하기 위한 제의적 노력을 기울인다.

이 수행적 퍼포먼스는 자본주의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양이 관객에게 건네는 손짓이자 소년과 양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질문들에 대한 성찰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순수한 증여는 과연 가능할까? 우리, 즉 인간과 동물은 진정 신화 속에서처럼 하나였던 적이 있었을까? 마음의 과학이 작동한다면 인간과 비인간은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4.1 [월] 7pm
4.2 [화] 7pm
국립극단 소극장 판

공연시간 50분

The Silence of the Lamb

What if the sheep that appeared in TV advertisements of financial corporations and music videos of idol stars appear on a theater stage? Dong-Hyun Nam and his Sheep Nam are currently residing together somewhere around Gyeong-gi Province. It is their attempt to convert the exchange relationship that dominantly prevails in today's capitalistic society into a gift relationship, notion derived from 「The Gift」, Marcel Mauss (1925).

Dong-Hyun Nam is the shepherd who delivers the ancient souls of sheep to the audience. He starts a mutually symmetric conversation with the animals and objects that have been covered up as 'products' by phantoms of capitalism. This work is a ritualistic effort to share their forgotten voices with the audience.

4.1 [Mon] 7pm
4.2 [Tue] 7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Pan Theater

Running time 50min

Directed: Yang Nam / Concept & Research: Dong Hyun Nam / Scenario: Hyun Suk Seo / Assistant Director: Sang Suk Kim / Performers: Yang Nam, Dong Hyun Nam, Ae Jin Jung, Jong Min Ahn / Stage Director: Da Seul Lim / Video Operator: Sang Rok Kwon / Lighting Operator: Hyo Jung Lee / Staff: Yeong Chae Ho, So Heun Park / Thanks to: Nam Soo Kim, Myung Jin Heo
This show was selected as a program of '2012 Seoul Art Space_Mullae, MAP(Mullae Arts Plus)'.

Photo © the artist



MARS II

신체는 일련의 물리적 원리에 따라 ‘동작’을 만든다. 탄성, 마찰, 가속도,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작용과 반작용 등이 그것이다. 「MARS II」는 이 기본적인 물리학적 개념들이 어떻게 안무에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말하자면 무용은 ‘지구특정적’인 예술인 셈이다.

기본적인 기본적인 물리학적 상식은 ‘작품’을 미학적으로 재발견하도록 하는 감성적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노경애는 마치 과학 실연을 해주듯 사소한 신체적 사건들의 물리학적 원리를 보여주지만, 그것은 더 먼 곳으로의 자유로운 외도를 스케치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 마치 ‘화성’에서 가벼워진 몸을 허공에 던지듯, 상상의 여정은 지적이고도 즐거운 감각의 궤적을 만든다. 그 여정을 만드는 과정이 곧 ‘안무’가 아닐까.

4.1 [월] 8:30pm

4.2 [화] 8:30pm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공연시간 40분

MARS II

The body creates ‘movements’ based on the principles of physics. Elasticity, friction, acceleration, potential energy and kinetic energy, action and reaction can be examples of such. 「MARS II」 presents how fundamental concepts of physics are applied to choreography. One could say dance is an ‘earth-specific’ art.

4.1 [Mon] 8:30pm

4.2 [Tue] 8:30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Running time 40 min



Photo © Ma No Ahn

Concept & Choreography: Kyung Ae Ro / Dance & Performance: Jeun Lee, Sang Eun Yoon, Hyo Jin Kim / Video: Ma No Ahn
Organized by: ett
Supported by: CABRA vzw, Belgium

텔레워크

멀리 본다(Tele-vision)는 것은 인류가 가진 오래된 감각 중에 하나이다. 특정한 시간 동안 멀리 있는 풍경을 바라본다는 점은 달맞이나 새해와 같은 기원 의식과 유사하다. 도시에서의 감각체험은 늘 가까운 것을 마주하는 데에 있으며 멀리 바라보는 감각은 제의적, 기원적 순간에만 발현되도록 구조되어 있다. 근시에 걸린 도시인들은 새해 맞이나 달맞이를 하며 일년에 한 번 원시인(遠視人)이 된다.

텔레워크(Tele-walk)는 오래된 감각의 차원으로, 즉 시원적 풍경 속으로 퍼포머를 피드백 시키고 현재와 과거, 무대와 풍경, 자연과 인간 등 모든 이분법적 요소들을 평면적으로 만들어 공감각체험을 가능케한다.

밤에 멀리 본 산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있는 풍경, 경치와는 또 다른 풍경으로 출현한다. 산세, 지형이 어둠에 덮혀 그 형태와 크기를 가능할 수 없는 추상적 풍경을 촘촘한 걸음으로 재어본다. 추상적인 것을 실재적인 방법으로 마주하고 그 궤적을 바라본다.

4.3 [수] 7:30pm
4.19 [금] 7:30pm
장소 추후 공지

공연 시간 30분

Tele-walk

Tele-vision is an ancient sense kept by mankind. Gazing at the scenery in distance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bears a close parallel to moon watching or ancestral rites of the New Year. The sensual experience of the city always involves facing something close by. In today's society the sensual experience of gazing something in far distance is structured to only manifest itself in ritualistic and ceremonial moments. The myopic urbanites only become hyperopic once a year as they celebrate the New Year or go moon watching.

4.3 [Wed] 7:30pm
4.19 [Fri] 7:30pm
Site to be announced

Running time 30 min



Photo © the artist

Pacemaker & Mountaineering Operator: San il, Woong-tae Hwang / Mountaineering: Sangwoo Lee, Gangsan Jung / Sound Director: Young-gun Hong / Assistant Director: Soom, Unamoo / Concept: Voyon Kim Supported b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가곡실격: 나흘 밤

「나흘 밤」은 가곡의 메타포에서 출발한다. 시와 목소리, 그리고 안무가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하는 신체 퍼포먼스로서의 가곡이다. 이것은 ‘시’라는 문학이 평면에 쓰인 형태를 벗어나 목소리로 발화되는 과정을 또 한 번 진화시킨 것으로, 공간에 쓰는 일종의 입체시가 될 것이다.

묘하게 아름다운 남자를 보았다네
뽕가게 아름다운 남자를 만났다네
탐나게 아름다운 남자를 만_다네

「나흘 밤」은 시를 쓰는 행위이다. 이것은 한 노래가 처한 상황을 지켜보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태어남과 죽음은 세상의 원리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 쓰임을 다한 것들은 소멸하도록 두는 것이
마땅하나, 가곡의 멸종은 조금 아까운 일이다. 실은,
아깝다는 말이 가벼울 정도로 제법 아름답기까지 하다.
이 프로젝트는 몇몇 시선에 의해 유령처럼 존재하는 가곡이
지닌 아름다움의 구조를 해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 박민희

4.4 [목] 7pm
4.5 [금] 7pm
국립극단 소극장 판

공연 시간 60분

No Longer Gagok: four nights

「Four Nights」 sets off as a metaphor of gagok*. It is a gagok piece in the form of physical performance, where poetry, voice, and choreography spread out from the common roots. Poetry no longer clings to its written format on a plane surface, it moves even a step further from being articulated through human voice, but rather it is inscribed inscribed in three-dimensional space as stereo-poetry. *

Gagok: Traditional Korean vocal music using odes as its lyrics. Believed to originate from the Goryeo Dynasty, traditional gagok became a representative art genre of the upper class and the royal family during Joseon Dynasty.

4.4 [Thu] 7pm
4.5 [Fri] 7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Pan Theater

Running time 60 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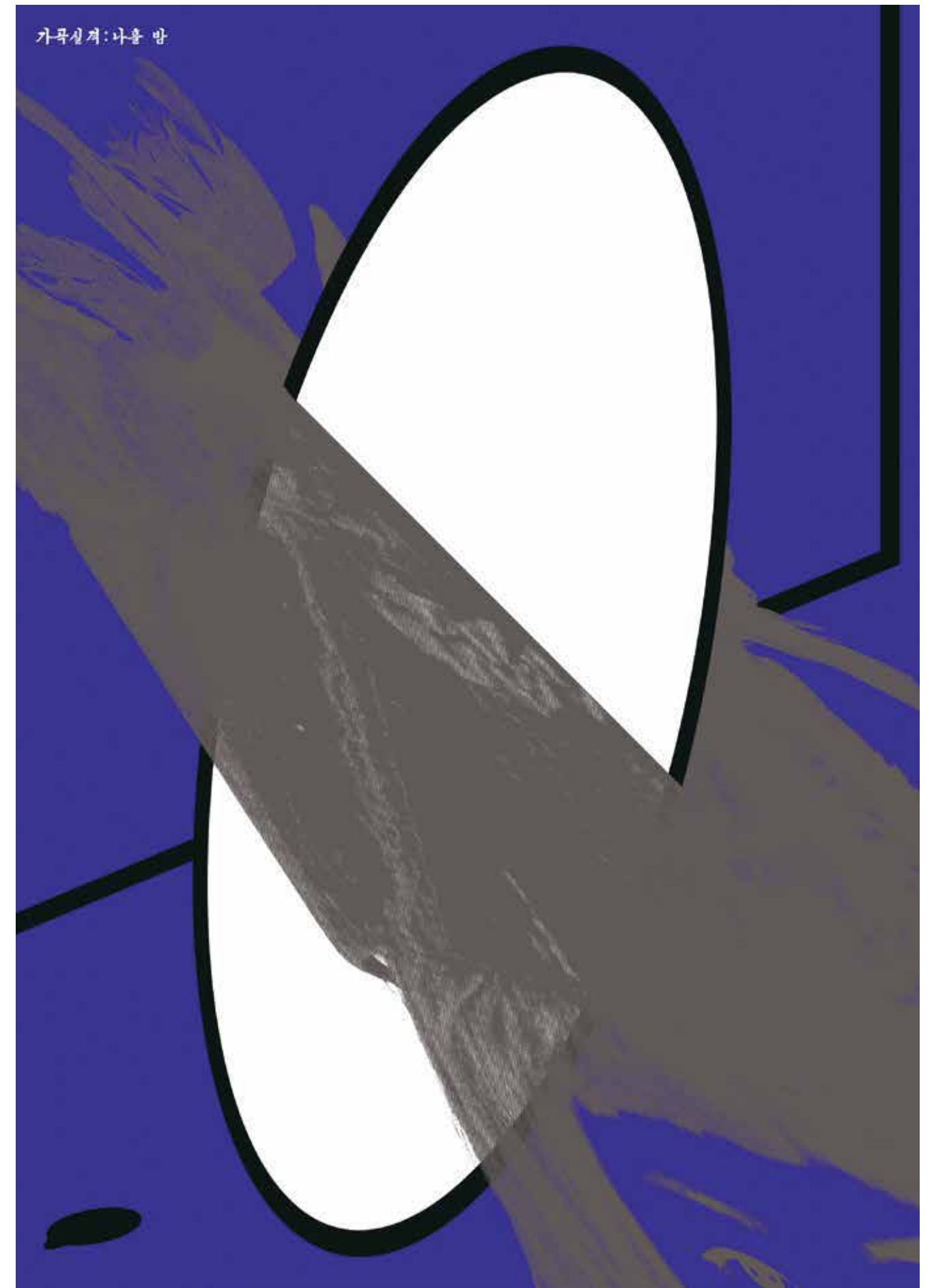


Photo © Jaewon Yun, Moonsick Gang

Direction, Music, Choreography: Minhee Park /
Stage Design: Park Kiljong / Choreography co-creation:
Jeun Lee, Eonjin Jeong / Performer: Yeonwoo Na,
Minhee Park, Kipum Lee, Jeun Lee, Boram Jang /
Live Sound Processing: Byungjun Kwon / Costume:
Jaewon Yun / PR material- Photo: Jaewon Yun,
Design: Moonsick Gang
Support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rts Council Korea

사요나라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존재가 불치병에 걸린 소녀에게 삶을 성찰하는 시를 읽어준다. 그 천사 같은 간병인은 로봇이다.

사소한 일상을 극사실주의적인 연출로 무대화하면서 탄탄한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히라타 오리자가 '조용한 연극'의 '새로운 생명력'을 위해 무대로 견인한 인물상은 안드로이드다. '제미노이드F'에게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아니, 인간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정교한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 휴마노이드 연극은 평이할 정도로 단순한 대화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토록 단순한 대화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은 별개의 문제다.

인간은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가? 어떻게 정서와 경험을 공유하는가? '인간'에 대한 질문은 곧 '연극'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오리지에 있어서 '연극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새롭게 풀어야 하는 숙제다. '조용한 연극'의 적막은 꼬리를 잇는 질문들을 수용하기 위한 빈 공간이다.

4.4 [목] 8:30pm

4.5 [금] 8:30pm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공연 시간 [공연] 30분 [렉처] 30분

이 공연은 4월 6일 토요일부터 4월 7일 일요일까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도 상연합니다.

Sayonara

The most 'life-like' object in the world reads poetry on notions of life to a terminally ill girl. This angelic caregiver is an android robot, Geminoid F. 'What do life and death mean to Geminoid F? Or rather, what does "to be a human" mean to humans?' This humanoid play based on elaborately advanced technology consists of simple, colloquial dialogues. Yet understanding how this simple dialogue works is not a simple task. How do human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How do we share emotions and experiences? Questions on 'humans' become questions on 'theater'.

4.4 [Thu] 8: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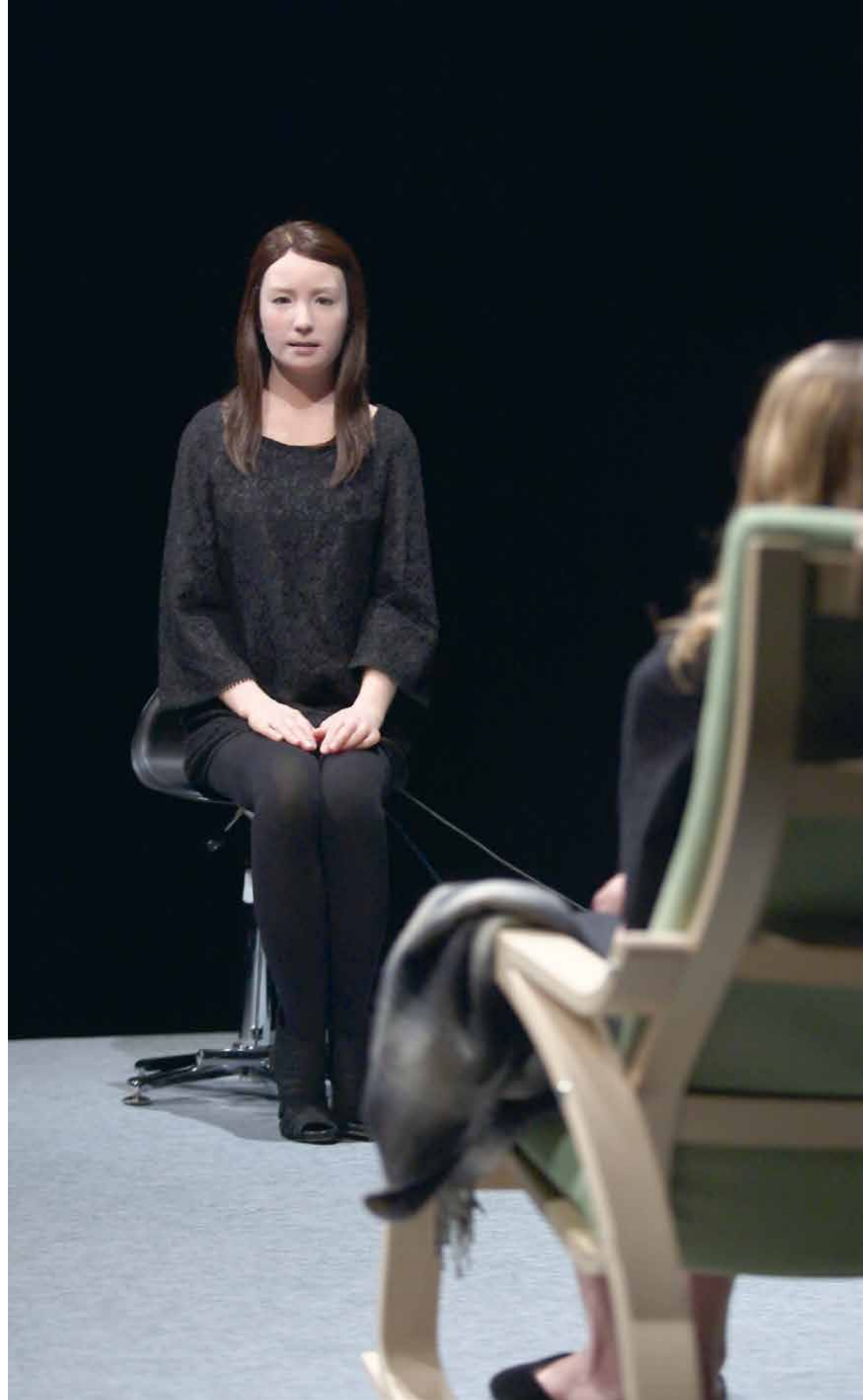
4.5 [Fri] 8:30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Running time [performance] 30 min
[lecture] 30 min

The performance will be also presented at Daejeon Culture & Arts Center from 4.6 [Sat] to 4.7 [Sun].

Playwright & Direction: Hirata Oriza / Technical Advisor: Ishiguro Hiroshi (Osaka University & ATR Research Lab) / Performer: Android 'Geminoid F': Kawamura Tatsuya, Kotaki Mariko / Android Motion & Voice: Inoue Minako / Stage Design: Sugiyama Itaru / Light Design: Nishimoto Aya / Costume: Masakane Aya / Robot Director: Chikaraishi Takenobu (Osaka University Hiroshi Ishiguro Laboratory / Osaka University Center for the Study of Communication Design) / Production: Osaka University ATR Social Media Research Laboratory Group, Komaba Agora Theater, Seinendan / Translation & Interpretation: Hongye Lee
Supported by: The Japan Foundation, Seoul



장애극장

무용수들에게 자전적 발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다큐멘터리 연극이자 메타무용으로서 연작을 국내 관객들에게도 선보여온 제롬 벨이 이번에 협업한 퍼포머들은 그 어떤 프로젝트에서보다 낮은 '타자', 바로 지적장애를 가진 배우들이다.

취리히에서 '예술지원금'이 아닌 '복지지원금'을 기반으로 극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 '배우들'에게는 자신들을 위한 담론도, 자신의 말을 대신 해줄 대변인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평가절하된 나름대로의 재능 속에 연극의 희망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보다 더 큰 것일 수도 있다.

열한 명의 학습장애 배우들은 차근차근 자신의 인생과 재능을 솔직하게 관객과 공유한다. 각기 다른 자의식과 지적 능력은 관객에게 겸허와 관용을 넘어 '차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아니, '차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인가? '관용'이란 관객의 허세일까? '배우'로서의 그들의 의도와 능력에 대해 '정상'을 자처하는 관객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걸까?

몰이해 속에 방치된 관객이야말로 스스로의 무지를 극복할 단서를 찾아야 한다. '장애 연극'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깨우침'은 얼마나 유효한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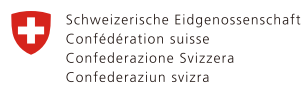
4.6 [토] 3pm

4.7 [일] 3pm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공연 시간 90분

이 공연은 4월 11일 목요일부터 4월 12일 금요일까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도 상연합니다.



Embassy of Switzerland in the Republic of Korea



Disabled Theater

For his performance 「Disabled Theater」 (2012) Jérôme Bel has worked with the mentally disabled actors of the Theatre HORA, based in Zurich. Bel sheds light on the dynamics of exclusion that leads to the marginalization of those who are considered unable to produce, exposing how, on the contrary, they are able to question the very mechanisms of representation, and to hint at existence as a non-partitioned mode of presence.

4.6 [Sat] 3pm

4.7 [Sun] 3pm

Sogang Univ. Mary Hall
Grand Theater

Running time 90 min

The performance will be also presented at Daejeon Culture & Arts Center from 4.11 [Thu] to 4.12 [Fri].

「Disabled Theater」 (2012) / Concept: Jérôme Bel / Duration: 1h30min (No intermission) / Language: Swiss German with English and Korean translation / By and With: Remo Beuggert, Gianni Blumer, Damian Bright, Matthias Brücker, Matthias Grandjean, Julia Häusermann, Sara Hess, Miranda Hossle, Peter Keller, Lorraine Meier, Tiziana Pagliaro / Assistance and Translation: Simone Truong, Chris Weinheimer / Dramaturgy: Marcel Bugiel / Assistant Jérôme Bel: Maxime Kurvers / Intern: Jean-Florent Westrelin / Thanks to: Sasa Asentic, Tom Stromberg, Andreas Meder (Internationales Theaterfestival OKKUPATION!), Stiftung Züriwerk, Fabriktheater Rote Fabrik Zürich and the audience of our public try outs / Production: Theater HORA - Stiftung Züriwerk (Zurich) / With the support of: Stadt Zürich Kultur, Kanton Zürich Fachstelle Kultur, Pro Helvetia, Stiftung Denk an mich, Ernst Göhner Stiftung / Production manager: Ketty Ghnassia / Artistic Director Theater HORA: Michael Elber / Actors training Theater HORA: Urs Beeler / General Manager Theater HORA: Giancarlo Marinucci / Coproduction: Theater HORA, R.B. Jérôme Bel, Festival AUAWIRLEBEN (Berne/Bern), Kunstenfestivaldesarts (Bruxelles/Brussels/Brüssel), Festival d'Avignon, Ruhrtriennale, Festival d'Automne à Paris, Les Spectacles vivants—Centre Pompidou (Paris), La Bâtie—Festival de Genève, Hebbel am Ufer (Berlin) / Tour information and organisation: Theater HORA (www.hora.ch) (www.jeromebel.fr) / Translation: Shinu Kim
「Disabled Theatre」 by Jérôme Bel and Theatre Hora is nominated for the Theatertreffen Berlin 2013. Supported by: Embassy of Switzerland, Swiss Cultural Fund Korea, Institut Français de Corée du Sud



Photo © Michael Bause

(오프)스테이지 / 마스터클래스

(Off)Stage / Masterclass

5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정점에 있었던 <여성국극>은 노래(창)와 춤(무)이 어우러진 일반적인 창무극의 형태를 띠지만, 오로지 여성만이 무대 위에 설 수 있다는 독특하고도 전복적인 성격을 가진다.

여성국극에는 언제나 극을 주도하는 전형적인 3인의 주요 남역배우가 등장하는데, 오도코 니마이(남자주역으로 용맹하면서도 낭만적인 성격을 가진다.), 삼마이(남자조연으로 재담과 익살을 도맡는다.) 그리고 가다키(남자조연이자 악역으로 남녀 주인공간의 사랑을 방해한다.)가 그들이다.

남역배우들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자신의 신체에 남성을 체화하기 위해 길고도 혹독한 훈련과 수행을 거친다. 이를 통해 그들의 무대 안팎의 삶은 성별규범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규범들에 충돌하고 넘어서기를 반복한다.

4.6 [토] 5pm/7pm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공연 시간 70분

At the height of popular culture in Korea's 1950s was 'Female Gukgeuk', the Korean traditional female musical drama. Although it shares the same structure of a regular Changmugeuk combining singing (chang) and dancing (mu), in 'Female Gukgeuk', all roles, including men's, were acted out by women, representing its subversive character. Siren eun young jung writes and directs a stage piece starring two important Gukgeuk actresses. Through Deung-woo Lee, who has typically played male characters for decades, siren eun young jung presents an acting lesson on embodying masculinity given to female Gukgeuk students. She also invites the first generation of Gukgeuk actress Young-suk Cho to tell her intriguing story as an actress and as a woman living through the dynamic modernization period in Korea.

4.6 [Sat] 5pm/7pm
Sogang Univ. Mary Hall
Small Theater

Running time 70 min



Director: siren eun young jung / Assistant Director: Heein Lee / Producer: Hyunjin Kim / Cast: Young Sook Cho, Deung Woo Lee, Yong Sook Kim, Gye Soon Lee

Photo © the artist

거기에 쓰여있다

「거기에 쓰여있다」는 관객과 무용수가 안무에 대한 ‘악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악보 속에는 동 떨어진 단어들의 나열, 긴 인용들, 짧은 하이쿠들, 이야기의 조각들이 담겨있고 저마다 안무의 리듬에 반응한다. 이로써 관객들은 언어와 신체 간의 공백을 스스로 채우도록 초대된다.

서로 다른 언어와 동시에 읽는다는 행위가 충돌할 때 열리는 새로운 공간은 관객의 상상력과 더불어 온전히 자유로운 영역이 된다. 이 공연은 소통이라는 주제를 섬세하고 미묘하게 다루고 있는 안무적 논문이다.

이 작품은 2002년 일본 효고현 이타미시 아이홀에서 초연된 후, 교토, 후쿠오카, 브뤼셀, 이스탄불에서 공연되었다.

4.8 [월] 8:30pm
4.9 [화] 8:30pm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공연 시간 80분

It's Written There

In 「It's Written There」, the Japanese artist shares an one hundred page choreographic score with the audience. This book is filled with words, pictures, symbols, interviews on dancers, and diaries of the choreographer. In essence, it is a documentary record on the creation of choreography. From the gaps between the body and the language emerges a space entirely open to imagination and audiences begin to hold different experiential images as they turn the pages.

The work was premiered in 2002 at Ai Hall, ITAMI Municipal Drama Hall, Hyogo Prefecture in Japan and was presented in Kyoto, Fukuoka, Brussels, and Istanbul. This presentation is a newly created version, together with Ahn Aesoon Dance Company.

4.8 [Mon] 8:30pm
4.9 [Tue] 8:30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Running time 80 min

강동아트센터
Gangdong Arts Center

Co-production: Festival Bo:m, Gangdong Arts Center, Ahn Aesoon Dance Company / Concept and Direction: Zan Yamashita / Performers: Han Sang Ryul, Heo Hyo Seon, Yoon Bo Ae, Zan Yamashita / Book Design: Emi Naya / Lighting Design: Asako Miura / Manager: Yukako Ogura / Ahn Aesoon Dance Company Artistic Director: Ae soon Ahn / Ahn Aesoon Dance Company Manager: Min Ho Choi / Coordinator & Translation: Jooyoung Koh / Featured Guest: Jerok Park, Myungsung Sign Language Chorus (Guidance: Gyu Soon Ahn)
Premiere at the ITAMI Municipal Drama Hall (AI HALL) in 2002. "Take a chance project001"
Supported by: The Saison Foundation

THE SAISON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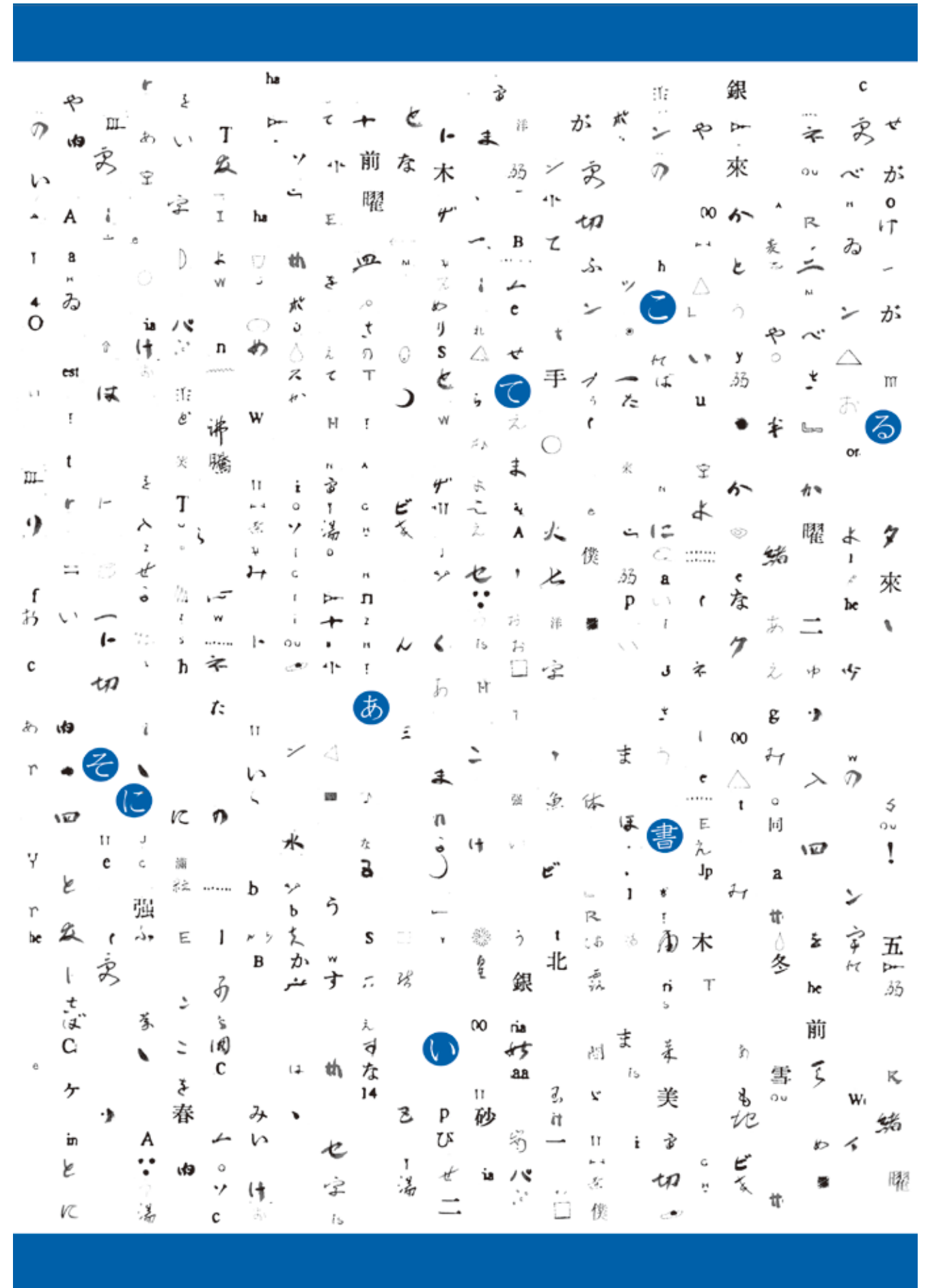


Photo © the artist

헤테로토피아

고전 발레를 21세기의 감각과 태도로 재발명 해온 포사이스의 야심작에는 그의 핵심적인 질문들이 녹아 있다.

우리는 왜 움직이는가? 움직임을 어떻게 보는가? 공간은 움직임과 시선을 어떻게 맥락화하는가? 이 모든 현상은 어떤 언어적 과정을 거치는가?

미셸 푸코의 개념을 제목으로 인용한 이 작품에는 언어와 비언어, 신체와 개념, 소통과 단절이 '혼재'한다. 장소는 낯설고 움직임은 모호하다. 이 신비롭고도 혼란스러운 다차원의 혼재향에서 '소통'의 단서를 발굴하는 것은 관객의 몫이다. 이를 위해 관객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각자의 여행을 떠나야 한다.

소수의 여행객들만을 위한 이 특별한 공간은 스스로를 무한 증식한다. 이질적인 것들이 중첩되고, 하나의 정황이 무한한 의미로 파생된다. 소통의 발생은 제한된 공간을 끊임없이 무한한 세부들로 분할한다. 지각의 조건들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 담론은 없다. 언제나 눈 앞의 현실의 '너머'가 도사린다.

관객 각자는 파편들을 조합하는 이 게임의 '플레이어'로서 분산된 질서의 일부를 이룬다. 파편화된 기표들의 범람 속에서 '해석'의 책무는 도리어 짐이 된다. 소통의 다각적인 문이 열리는 것은 단절과 오류를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이 경이로운 감각의 자유를 당신은 얼마나 풍요로이 누릴 수 있는가?

4.10 [수] / 11 [목] / 12 [금] 8pm
4.13 [토] / 14 [일] 5pm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공연 시간 80분



Heterotopia

「Heterotopia」 is a meditation on the nature of translation and the failures that attend its efforts. The work transpires in two obscure topographies of unarticulated desire. One, a raucous and supernatural oratorio, which is performed in incomprehensible yet intelligible languages, serves as a complementary orchestra to the other, a strange assembly of listening creatures, whose futile attempts to understand the perplexing music result in still stranger actions.

4.10 [Wed] / 4.11 [Thu] / 4.12 [Fri] 8pm
4.13 [Sat] / 4.14 [Sun] 5pm
Seongnam Arts Center Opera House

Running time 80 min

A Work by: William Forsythe / Music: Thom Willems / Sound Design: Dietrich Krüger / Costumes: Dorothee Merg / Dramaturgy: Dr. Freya Vass-Rhee / Premiere: 25 October 2006, Schauspielhaus Zürich, Schiffbauhalle / No admittance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The Forsythe Company is supported by the city of Dresden and the state of Saxony as well as the city of Frankfurt am Main and the state of Hesse. The Forsythe Company is Company-in-Residence of both HELLE-RAU—European Center for the Arts in Dresden and the Bockenheimer Depot in Frankfurt am Main. With special thanks to the ALTANA Kulturstiftung for supporting The Forsythe Company. Supported by: Goethe-Institut Korea, The Federal Foreign Office of Germany
공동 기획: 페스티벌 볼, 성남문화재단
주최: 성남문화재단

Cyril Baldy & Fabrice Mazilah, Photo © Dominik Mentzos



1395일 간의 흑백

1395 Days without Red

「1395일 간의 흑백」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1395일간 세르비아에 의해 점령당했던 보스니아 사라예보의 모습을 담고 있다. 유럽 역사상 가장 긴 점령으로 기록되는 이 기간 동안 도시 곳곳의 저격수와 폭탄테러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건물과 시설이 파괴되었다.

양리 살라는 한 때 '저격수의 거리'로 불렸던 사라예보의 거리들을 오늘날의 시선으로 주시하며 그 거리들에 담긴 참혹한 트라우마를 오히려 시적으로 그려낸다. 이 작품은 지역성을 뛰어넘는 감정의 보편성과 한 도시의 집단기억에 관한 시간적 여행이다.

4.10 [수] 7:30pm

4.17 [수] 7:30pm

아트하우스 모모

공연 시간 43분 46초

「1395 Days Without Red」 intertwines a daily rehearsal of the Sarajevo Philharmonic Orchestra with a musician crossing the besieged city on her way to the rehearsal. While a series of difficulties with the tempo interrupt the orchestra's run-through of the First Movement of Tchaikovsky's Pathétique, the woman's progress through the city is halted by a succession of street-crossings that the siege has turned into probable dead-ends.

The film makes reference to the 1395 days of the siege of Sarajevo, when wearing red or bright colours risked attracting the attention of the snipers. At each crossing she stops, holds her breath and continues. After each crossing she catches her breath and resumes. Breathing withheld, breathing released: portions of time that evolve into measures of humming that enables her to carry on. She runs through the city while rehearsing the music in her head.

Like an improbable score, where two instruments respond to different stimuli while playing in tempo with each other, humming and the orchestra synthesize into one tune, a tune of continuance and persistence against the odds.

4.10 [Wed] 7:30pm

4.17 [Wed] 7:30pm

Arthouse MOMO

Running time 43 min 46 sec



「1395 Days without Red」
A film by Anri Sala / In collaboration with Liria Bëgëja /
From a project by Šejla Kamerić and Anri Sala in col-
laboration with Ari Benjamin Meyers / © Anri Sala, Šejla
Kamerić, Artangel, SCCA/pro.ba 2011

Organized by: Festival Bo:m, Arthouse MOMO / 「1395 Days Without Red」 (2011) / A film by Anri Sala / In collaboration with Liria Bëgëja / From a project by Šejla Kamerić and Anri Sala in collaboration with Ari Benjamin Meyers / HD Video Projection; Discrete 5.0 / Duration: 43 min 46 sec / © Anri Sala, Šejla Kamerić, Artangel, SCCA/pro.ba 2011
Commissioned by Artangel; Coproduction Museum Boijmans Van Beuningen(Rotterdam) / With the Support of Han Nefkens, H+F patronage; Fundació Museu D'Art Contemporani de Barcelona (MACBA); Manchester International Festival (Whitworth Art Gallery, Manchester); Arts Council England; Festival d'Automne à Paris; European Cultural Foundation; Film Fund (Sarajevo); Marian Goodman Gallery (New York); Hauser & Wirth (London / Zürich)
Courtesy of Marian Goodman Gallery (New York) and Hauser & Wirth (London / Zürich)

나는 시징이 좋아요—시징 학교

‘시징맨(Xijing Men)’은 중국의 첸 샤오시웅, 한국의 김홍석, 그리고 일본의 오자와 츠요시가 2006년에 결성한 프로젝트 기반의 협력 그룹이다.

북경(北京)과 남경(南京), 동경(東京)은 존재하지만, 서경(西京)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 작가는 자신들 스스로를 서경인(西京人), 곧 ‘시징맨’으로 명하고 ‘서경’이라는 도시를 둘러싼 이야기를 펼친다.

이번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는 ‘시징 학교’이다. 이들은 미국 캔사스시티의 미술대학 학생들과 함께 언어, 철학, 음악, 역사, 체육, 과학 과목에 대해 같이 공부하며 연구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언어, 교육, 문화에 대한 독특한 탐구과정이자 기존의 인식과 관습에 대한 풍자이다.

4.10 [수] 7:30pm

4.17 [수] 7:30pm

아트하우스 모모

공연 시간 26분 47초

I Love Xijing—Xijing School

Xijing Men is an artist collective comprising three members: Chen Shaoxiong (China), Gimhongsok (Korea), and Tsuyoshi Ozawa (Japan). The Xijing Men are from the fictitious city of Xijing, an imagined political entity in East Asia, meaning “western capital”. The word play has roots in the names of real cities: Beijing (northern capital), Nanjing (southern capital), and Tokyo (eastern capital). The Xijing Men, who constantly face communicational barriers within themselves, now attempt to communicate with students of Kansas City Art Institute by teaching them language, philosophy, music, history, sports, science, and etc. [I Love Xijing-Xijing School] is the record of a humorous study on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e of our ‘global society’. It is at the same time a cheerful satire on existing norms and perceptions.

4.10 [Wed] 7:30pm

4.17 [Wed] 7:30pm

Arthouse MOMO

Running time 26 min 47 sec



Photo © the artist

Organized by: Festival Bo:m, Arthouse MOMO /
Xijing Men: Chen Shaoxiong, Gimhongsok, Tsuyoshi
Ozawa / I Love Xijing-Xijing School / 2013 / Single
channel video / 26 min 47 sec

우리는 죽게 될 거야

영진 리와 그가 이끄는 밴드 '퓨처 와이프'가 주도하는 이 락 콘서트의 주제는 '죽음'이다.

메멘토 모리. (모두 언젠가는 죽을지니.)

이 하나의 절대 진리는 식상한 클리셰이기도 하다. 각자 자신들의 삶을 노래하는 비전문 배우들은 보편적 진리의 권력과 진부함 사이에서 기묘한 줄타기를 하며 스스로의 나약함을 파헤친다. 극작가이자 밴드 리더인 영진 리의 치밀한 연출은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헤안의 단서들을 이끌어낸다.

그의 도구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솔직함과 대담함이다. 그들이 말하는 삶의 단상들은 실패, 실연, 노화, 병 등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보편적인 일들이지만, 그것이 사적인 사건으로서 삶 속에 닥칠 때의 충격은 만만치 않다. 관객의 입장에서 그것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나약함을 얼마나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4.11 [목] / 12 [금] 8pm

4.13 [토] / 14 [일] 3pm

두산아트센터 Space 111

공연 시간 60분

We're Gonna Die

In this 2011 Obie Award-winning piece, provocative playwright Young Jean Lee takes the stage with her band Future Wife in a life-affirming show about the thing everyone has in common: WE'RE GONNA DIE. You may be miserable, but you won't be alone.

Sly, weird and thoroughly winning...It's forthright acknowledgement that life can be a rough business is bracing, funny and, yes, consoling." — Charles Isherwood, The New York Times

Enormously touching... Lee purchases our hearts with her bravery's own coin. — Helen Shaw, Time Out New York

4.11 [Thu] / 4.12 [Fri] 8pm
4.13 [Sat] / 4.14 [Sun] 3pm
Doosan Art Center Space 111

Running time 60 min



Photo © Blaine Davis

Organized by: Festival Bo:m, Doosan Art Center / Produced by: Young Jean Lee's Theater Company / Written and performed by: Young Jean Lee / Original Music by: Young Jean Lee, Tim Simmonds, Mike Hanf, Nick Jenkins, and Ben Kupstas / Performed by: Future Wife (Future Wife is Mike Hanf [guitar], Nick Jenkins [bass], Ben Kupstas [keyboards], Booker Stardrum [drum] and Young Jean Lee) / Choreography by: Faye Driscoll / Directed by: Paul Lazar / Associate Director: Morgan Gould / Costumes: Roxana Ramseur / Dramaturgy: Mike Farry / Production Supervisor: Sunny Stapleton / Producer: Young Jean Lee's Theater Company Aaron Rosenblum / Translation: Hansol Jung / Production Coordinator & Subtitle Operator: Danbi Yi Originally produced by Caleb Hammons for 13 Playwrights Inc, in association with Young Jean Lee's Theater Company / Originally performed in April 2011 at Joe's Pub in New York, NY / Developed through a residency at the National Theater Institute at the Eugene O'Neill Theater Center and the Lower Manhattan Cultural Council's Swing Space program / Presented with support from Andrew W. Mellon Foundation, the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본 공연은 '2013 페스티벌 볼'과 '두산인문극장 2013'의 공동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This performance is presented by Festival Bo:m and Doosan Humanities Theater Series of Doosan Art Center.

무대공포(hurt/help)

‘자폐증’이라 진단받은 칼리는 극심한 언어발달장애를 겪어왔다. 외마디 단어조차 말하거나 알아듣지 못했다. 아니, 그것은 어른들의 바보 같은 추측이었다. 칼리가 11살 처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손가락 하나로 느릿느릿 차례로 키보드 네 개를 눌렀다. 스크린에 글자가 떴다.

“H U R T”

깜짝 놀란 부모가 우연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해보라고 부추겼다. 이번에도 손가락 하나로 느릿느릿 키보드 네 개를 눌렀다. “H E L P”

인간은 얼마나 높고 두터운 벽에 차단되어 살고 있는 걸까?

소름 끼치는 회오가 칼리의 부모를 엄습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이 당사자를 바로 앞에 두고 칼리에 대해 온갖 이야기들을 하곤 했는가? 칼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확신이 얼마나 공색한 것이었나? 정서라는 기제는 그 정교함 속에 얼마나 막대한 결핍을 숨기고 있는 걸까? ‘공감’이란 단어 앞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공색한 걸까?

『무대공포(HURT/HELP)』는 인간의 나약함을 직시한다. 소통 너머의 존재론적 공핍.

4.12 [금] / 4.13 [토] 5pm/7pm
4.14 [일] 5pm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공연 시간 60분

Stage Fright(hurt/help)

C, an eleven-year-old autistic girl with severe language disorder, could not utter or understand a single word all her life. At least that’s what her parents thought. Seated in front of a computer for the very first time, C ineptly pressed four consecutive keys, and her seemingly arbitrary inputs were displayed on the monitor as one very unlikely word: ‘h u r t’

The skeptical tutor urged her for another set; hence the next four letters reluctantly placed below the first message: ‘h e l p’

Beyond what barriers is each of us placed from another? What obscure mirror image do we impose upon others and upon ourselves?

The first installment of Stage Fright confronts the communicative destitution as the inherent human condition and questions what constitutes a theatrical experience.

4.12 [Fri] / 4.13 [Sat] 5pm/7pm
4.14 [Sun] 5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Running time 60 min



Photo © the artist



Text & Mise-en-scène: Hyun-Suk Seo / Performers: Seong Hoon Ahn, Seo Yeon Kim, Ji Hye Yoon, Tae Jun, Gun Hoe Kwon, Hee Ju Kang, Woongtae Hwang / Voice: Hyon Jong Lee, Hyun-Suk Seo / Choreography: Pil Seo Chung / Dramaturgy: Joo Young Koh / Assistant director: Darline Kim / Stage managers: Sung Woo Lee, Bo Young Lee / Technical director: Haneul Lee / Stage director: Eunjin Jo / Sound designer: Young-hoon Oh, Saerom Jung / Light designer: Younguk Lee / Set & Stage: Dong-Kyung Kim / Video and Video Operator: Daewhan Lee / Documentary: Hana Kang / Research: Jea Yoon Lee / Thanks to: Ji Young Lee, Myoung Me Kim, TapBee
Izayoi Yoshidamachi Studio staff—Director: Sachio Ichimura / Producer & Dramaturgy: Seunghyo Lee / Promotion: Kyoko Yokokawa / Production coordinator: Mami Takahashi
Co-production: Festival Bo-m, Izayoi Yoshidamachi Studio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가변 크기

‘가변 크기’는 미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설치 작업의 규모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는 설치물의 크기, 규모, 위치 등이 공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놓이거나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가변적 속성을 시간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본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가변 크기」는 미술과 퍼포먼스, 전시 공간과 무대 사이에서, 차원의 이동을 시도한다. 단서는 전시 만들기이다. 참여자의 각기 다른 신체를 기본 단위로 삼은 움직임과 그 조합, 그리고 측정의 행위가 함께 구축해가는 구조를 공간 속에서 펼쳐 보인다. 다양한 지속 시간을 통해 접히고 펼쳐지는 행위로서의 전시 만들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행위의 궤적들은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기록한다.

4.13 [토] / 14 [일] 1pm

4.15 [월] / 16 [화] 7pm

송원아트센터

공연 시간 60분

Dimensions Variable

‘Dimensions variable’ is a term regularly used in the visual art scene to explain the scale of an installation work. This means that the size, scale, and positions of the installation can be juxtaposed and opera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space. This work questions what would happen if such variable attributes were stretched out to the spheres of time. 「Dimensions Variable」 attempts a dimensional transition between visual arts and performance, between an exhibition space and a stage.

4.13 [Sat] / 4.14 [Sun] 1pm

4.15 [Mon] / 4.16 [Tue] 7pm

Songwon Art Center

Running time 60 min



Photo © the artist

Organized by: Festival Bo:m, Songwon Arts Center / Dramaturgy: Haeju Kim / Production: Sungmin Lee / Sound: Younggyu Jang / Performers: Hong seok Jang, Su-en Lee, Minha Yeo, Kwan hong Kim, Suna Lee, Leesu Jung, Jae Young Park, Dong Uk Kim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와의와의과의과 같이

As andofofand, andandofwith

흥내흥내흥낸다낸단다낸단단계단계단계체체체체체체개별체
개별성개별성개별성개별성개별성개별성개별성개별성개별성개별성
유전유전유전유전유전유전유전유전유전유전유전유전유전유전
복달복달복달복달복달복달복달복달복달복달복달복달복달복달
잘못잘못잘못잘못잘못잘못잘못잘못잘못잘못잘못잘못잘못
성의성의성의성의성의성의성의성의성의성의성의성의성의성의...

작업 안에서 규칙은 오직 따라 하기뿐, 신체를 통해 드러나는 정보들은 한정된 용어들로 전달, 해석되지 않는다. 그리고 발화자의 신호는 타자, 즉 다른 수신자를 거치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에 발화자 자신은 수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그대로 따라 하기'가 반복되듯 강박적으로 순환 한다면, 서로에게 가까워지기 위한 이 노력은 상황을 되려 서로가 그럴 수 없도록 하는 환원적 상태로 돌려보낸다. 이 배반 과정에서 몸은 가장 빨리 자기 확인과 회복을 해낸다.

하지만 회복된 자신은 곧 조금 전의 자기 지시를 다시금 마주하게 된다. 이 난처한 상황에서 그 이성은 어떤 신호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어떤 실천으로 몸을 이끌까?

4.17 [수] 7pm
4.18 [목] 7pm
국립극단 소극장 판

공연 시간 45분

The only rule applied in this work is to imitate. The information exposed through the body cannot be delivered, nor interpreted with language. The signals from the initiator pass through the other, so the recipients, but it eventually returns to the initiator himself. Thus the initiator becomes the recipient. If this 'direct imitation' circulates repetitively, the attempt to resemble another is reduced to a situation where this is no longer possible. In this process of betrayal, it is the body that mirrors and recovers oneself the fastest.

4.17 [Wed] 7pm
4.18 [Thu] 7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Pan Theater

Running time 45 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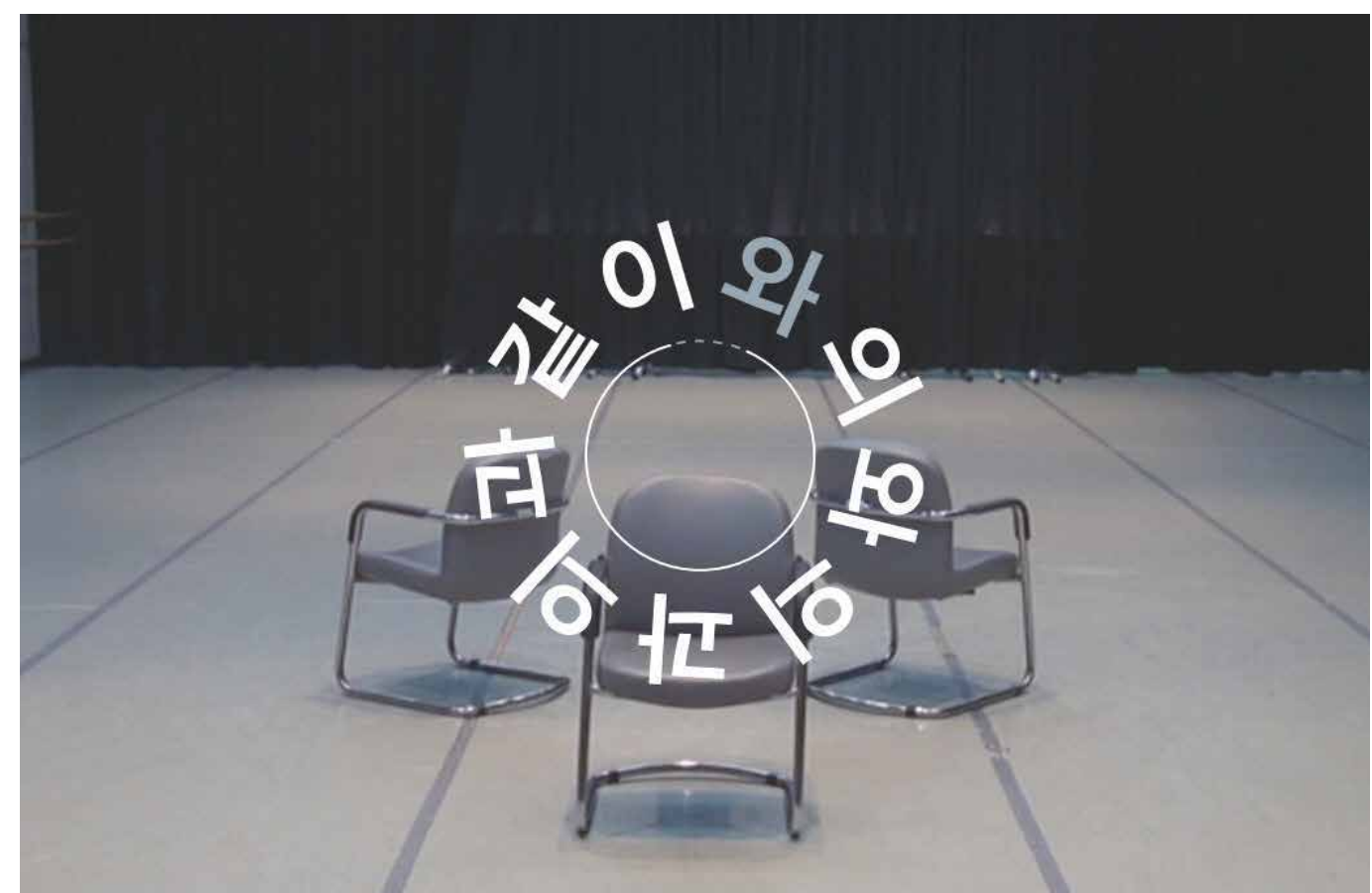


Photo © the artist

Co-directing: Gangil Yi, Seung-yoon Choi, Sung-hee We, Hyun-Joon Chang / Performers: Seung-yoon Choi, Sung-hee We, Hyun-Joon Chang / Sound performer: Gangil Yi / Proposer: Hyun-Joon Chang / Person in Charge: Hyun-Joon Chang

평행

Parallel

사진과 영화는 한 세기 넘게 이미지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왔다. 정보 제공이나 유희의 수단뿐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기록의 수단으로서, 재현의 패러다임이자, 사유의 방식으로서.

오늘날 이미지의 지각 변동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제 재현을 주도하는 새로운 매체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다. 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 걸까?

「평행」은 나무, 풀숲, 물, 불, 구름 등 자연의 모습이 지난 30년 간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에 의해 어떻게 다른 모습을 갖추어 왔는지를 추적한다. 시적 초연함과 비평적 예리함이 파로키 특유의 단순하면서도 목상적인 구성으로 엮이면서 ‘관점’에 대한 ‘메타관점’이 형성된다.

초기 애니메이션이 픽셀로 이루어진 평면적인 재현에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기술은 보다 정교할 뿐 아니라 자연의 질서와 패턴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규칙과 연산을 통해 대체적인 현실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숲’을 ‘나뭇잎’으로 덮어야 한다면, ‘기본유전성장 프로그램(basic genetic growth program)’은 “싱싱한 나뭇잎으로 덮인 나무”, 혹은 “6주짜리 나뭇잎으로 덮인 나무와 6주짜리 나뭇잎으로 덮인 나무들이 뒤섞인 숲”등을 만들 수 있다. 이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면서도, 현실과는 또 다른 ‘평행 현실’이기도 하다.

이 ‘복제’의 기법들에 의해 ‘객관성’이라는 자연주의의 신화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지금 어떤 다른 관념들을 생성하고 전파하고 있을까?

For over one hundred years photography and film were the leading media. From the start they served not only to inform and entertain but were also media of scientific research and documentation. That’s also why these reproduction techniques were associated with the notions of objectivity and contemporaneity—whereas images created by drawing and painting indicated subjectivity and the transrational. Apparently today computer animation is taking the lead.

In 「Parallel」, the subject is the development and creation of digital animation. If, for example, a forest has to be covered in foliage, the basic genetic growth program will be applied, so that ‘trees with fresh foliage’, ‘a forest in which some trees bear 4 week-old foliage, others 6 week-old foliage’ can be created. The more generative algorithms are used, the more the image detaches itself from the appearance as found and becomes an ideal-typical.

Using the example of trees and bushes, water, fire and clouds 「Parallel」 compares the development of surfaces and colourings over the past thirty years in computer animation images. The artist wants to document reality—effects such as reflections, clouds, and smoke in their evolutionary history.

4.10 [Wed] 9pm
4.17 [Wed] 9pm
Arthouse MOMO

Running time 17 min



「Parallel」 © Harun Farocki 2012

4.10 [수] 9pm
4.17 [수] 9pm
아트하우스 모모

공연 시간 17분

Organized by: Festival Bo:m, Arthouse MOMO / By: Harun Farocki / With: Matthias Rajmann / Material from: Computerspielemuseum, Berlin; Crytek GmbH, Frankfurt a. M.; Deutsche Sporthochschule Köln, Carl und Liselott Diem Archiv; Ecole Polytechnique; Laboratoire d’Hydrodynamique, Palaiseau Frankreich / Internet Archive: San Francisco CA, USA; NASA Goddard Scientific Visualization Studio, Washington DC, USA Stanford University; Computer Science Department, Stanford CA, USA; YouTube LLC, San Bruno CA, USA; Freie Universität Berlin: Zentrum für Digitale Medien / With: Paul Felkner, Ingo Kratisch, Reiner Meyer, Matthias Oborski, Jan Ralske, Andrew Stifter / Narrated by: Cynthia Beatt / English translation: Jan Ralske / Online editor & Sound Mix: Jan Ralske / Director: Harun Farocki / Funded by the Cultural Affairs Department of Berlin
The video installation 「Parallel」 was produced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The World Is Not Fair – Die Große Weltausstellung 2012’, a collaborative production by HAU 1-3, and raumlabor berlin.
With kind support from: Haupt Stadt Kultur Fonds, Stiftung Deutsche Klassenlotterie Berlin, and Schering Stiftung / In cooperation with: Grün Berlin GmbH, IGA Berlin 2012 Internationale Garten Ausstellung
© 2012 Harun Farocki Filmproduktion
www.farocki-film.de

저 여기 살았던 사람인데요

Stranger

내가 살던 집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기억 속의 그 방, 그 사람은 지금 내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 걸까?

정희영은 누구나 가짐직한 궁금증을 추억으로만 물어두지 않기로 한다. 발품을 팔아 옛집에 스며들어 있는 평범한 순간들을 '현재'로 소환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낯선 이방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그 집의 이방인이 되어야 한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절실함과 마이클 무어의 뻔뻔함이 하나가 되는 현장에는 예측할 수 없는 만남들이 기다린다.

이 자전적이고 수행적인 다큐멘터리에서, 과거를 찾는 시간여행은 싱겁고도 엉뚱하며, 극사실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인 단상들로 이루어진다. 귀찮은 불청객 정희영이 느닷없이 들이치는 자신만의 '추억'은 버거운 요구가 되어 집주인들을 괴롭힌다.

하지만, 엇갈린 시간에 같은 장소를 점유하는 타인들은 의외의 것들을 나누기도 한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 혹은 영원히 갖지 못했던 그 무언가의 궁극적인 결핍을 곱씹는 제식일 수도 있다. 아마 새로운 만남도 결국 해소해 주지 못할 존재론적 결핍.

4.10 [수] 9pm

4.17 [수] 9pm

아트하우스 모모

공연 시간 64분

How do my past homes look like today? What do the rooms and people in my memory mean to me now? Hee-young Chung decides to dig out these questions we all share from our deepest reminiscence. He visits his previous homes and recalls ordinary moments that permeate in the houses to the present. In order to realize this attempt, the help of the strangers currently residing in his past houses is absolutely necessary.

Above all, he himself has to become a stranger to the house. Here awaits unexpected encounters that arise from the desperateness of Marcel Proust and the audacity of Michael Moore.

4.10 [Wed] 9pm

4.17 [Wed] 9pm

Arthouse MOMO

Running time 64 min



Photo © the artist

Organized by: Festival Bo:m, Arthouse MOMO / Director & Camera Operator & Editor: Hee-Young Chung / Cast: Min-Jae Yoo, A, B, Thomas, Tae-Won Jin, Ji-Young Song, Hyeon-Ji Lee, Byeong-Ju Lee, Do-Hyung Kim, Hyeok-Joe Kwon, Hye-Ji Um / English Translator: Ha-Kyung Kim / Sound Engineer: Dong-Joo Park / Sound Source: www.freesound.org / Music: Flashman Opening Song, Texas Music Forge 'Austin blues 1'

「어린이 심사위원」 프레젠테이션

마말리안 다이빙 리플렉스는 그들이 '사회적 실천'에 초점을 맞춘 캐나다 아티스트 단체이다.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접근과 자력에 대한 문화적 인식에 도전하며 목소리를 잘 들을 수도, 발견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이다.

「어린이 심사위원」은 페스티벌이라는 어른들의 잔치에 어린이들을 초대하여, 어른들이 움켜쥐고 있는 문화적 권력을 빼앗아 마땅히 누려야 할 어린이들의 손에 쥐어주는 프로젝트이다.

어린이들이 VIP 이자 심사위원으로 페스티벌의 모든 공연에 참석한 뒤, 워크숍을 통해 독특한 상을 선정하고 트로피를 제작하여 페스티벌 폐막식에서 이를 시상한다.

올해 페스티벌 봄에서는 작가들이 다른 나라에서 선보였던 「어린이 심사위원」을 기반으로 이 작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당초 한국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작품을 실현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의 어린이들이 처한 교육현실과 조건에서 좌절되었다.

4.18 [목] 8시30분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공연 시간 80분

「The Children's Choice Awards」 Pres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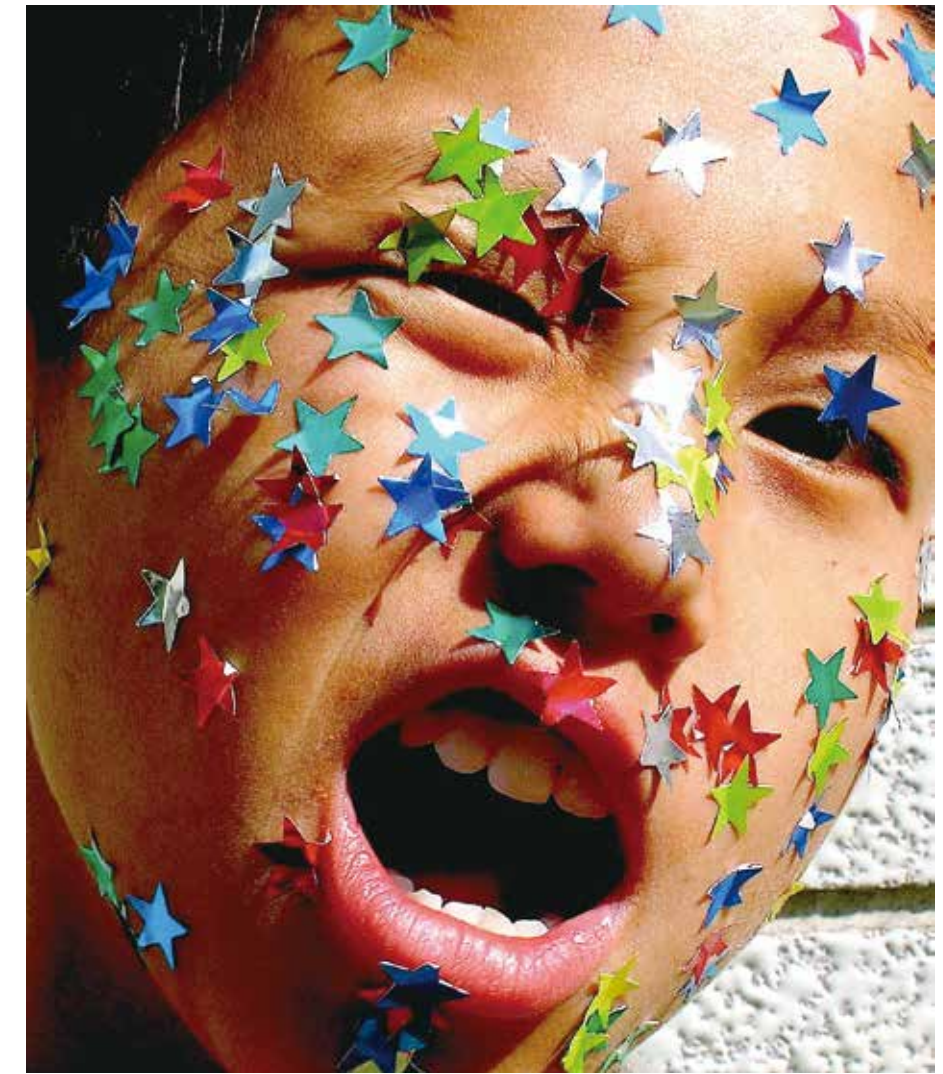
Mammalian Diving Reflex's work occurs in public, collaborates with non-artists, and attempts to create unusual social contexts and situations that bring children and adults together as well as individuals from different socio-economic, geographic, cultural, and racial backgrounds who wouldn't normally have the opportunity or reason to spend time together.

「The Children's Choice Awards」 is a decisive performance intervention that delves into art festivals, yanking power and authority from the clutches of adults and placing it in the deserving hands of children. A VIP Jury of kids are chauffeured from event to event to check out the art and offer their brash, incisive and audacious opinions.

At this year's Festival Bo:m, the Mammalians will present and share their experiences with 「The Children's Choice Awards」 and their other performances with the Korean audience in preparation for next year's festival when the children will take over.

4.18 [Thu] 8:30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Running time 80 min



Tashi Dolkar, Photo © Chime Dolkar. Courtesy of Mammalian Diving Reflex

신곡

2008년 로메오 카스텔루치는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의 주빈 아티스트로 초청되어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얻은 세 개의 작품 지옥, 연옥, 천국을 연출했다. 단테의 신곡은 그를 유년시절부터 사로잡았던 작품이지만, 그는 결코 이를 그대로 ‘각색’하지 않는다. 로메오 카스텔루치의 작업 노트에는 “신곡을 읽고, 또 읽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두드려보고, 공부하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을 때까지. 피부로 흡수해라. 마치 젖은 셔츠가 몸에 말라붙듯, 신곡이 내 몸 위에 말라붙게 하라,”고 적혀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매료되어 작품이 지닌 고귀한 가치를 끌어내려 애썼던 이 단테의 신곡을 로메오 카스텔루치는 오히려 ‘무대라는 흙바닥에 패대기친다.’ 그는 세 개의 무대를 통해 관객에게 이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지옥

어두운 숲, 지옥에 떨어진 남자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도대체 그가 지은 죄는 무엇인가? 그가 이토록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이다. 때로는 무대 위에 홀로 서 있고, 또 시골벽적인 군중 속에 파묻히기도 하는 남자는 자신을 상실해가는 과정에서 끝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로메오 카스텔루치는 바로 이 상실의 두려움과 고통의 극한을 보여주며 그 바닥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관객에게 묻고 있다.

연옥

연옥을 헤치며 나아가고 있는 남자는 호기심이 많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둘러싼 사물들과 상황들을 계속해서 멈추어 바라본다. 그의 일상은 그를 막아서기도 하고,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종종 그를 고문한다. 로메오 카스텔루치에게 있어서 연옥은 곧 일상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판에 박힌 업무, 도사리고 있는 함정들, 보잘 것 없는 자연과 삶의 본질. 이 일상에서 묵묵히 걸어가도록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이 먼 각도에서, 추상적으로, 또 초현실적으로 그려진다.

천국

관객은 공간을 자유로이 돌아다니도록 허락받는다. 그는 고요한 침묵과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졌다 완전히 깜깜해지는 공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접하게 된다. 로메오 카스텔루치가 「천국」에서 선보이는 이 세계는 모순된 세계이다. 「지옥」에서 인간이 천상으로부터 배제되었다면, 여기서 그는 세상으로부터 배제된다. 그는 이 초현실적이고 무색무취한,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이 공간에서 영원히 배회하도록 저주받는다.

Divina Commedia

If 「The Divine Comedy」 is a text that has accompanied Romeo Castellucci since his adolescence, he does not show a literal ‘adaptation’ of it. His work is inspired by this text, as he writes in his working notes: ‘Read, reread, dilate, hammer at and study in depth The Divine Comedy so that it can be forgotten. Absorb it through the epidermis. Let it dry on me like a wet shirt’. Romeo Castellucci attempts to ‘hurl down The Divine Comedy on the earth of a stage’. He offers the spectator, in three stages the experience of a Divine Comedy.

3.20 [수] 7pm

「신곡」, 상영 시간, 「지옥」 96분 / 「연옥」 + 「천국」 73분 + 6분

3.21 [목] 4pm

「자생하는 비극」, 상영 시간, 「체세나, 아비뇽, 베를린, 브뤼셀」 116분 05초 / 「베르겐, 파리, 로마, 스트라스부르」 110분 45초 / 「런던, 마르세유, 체세나」 113분 75초

필름포럼

「Tragedia Endogonidia's Film Cycle」 / By Romeo Castellucci / Video memory by Cristiano Carloni and Stefano Franceschetti / Original music by Scott Gibbons (2001-2004) / Total 340'15" / Production: Societas Raffaello Sanzio, Cesena; Festival d'Avignon; Hebbel Theater, Berlin; KunstenFESTIVALdesArts, Brussels; Bergen International Festival; Odéon, Théâtre de l'Europe with Festival d'Automne, Paris; RomaEuropa Festival; Le Maillon-Théâtre de Strasbourg; LIFT (London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Théâtre des Bernardines with Théâtre du Gymnase, Marseille / In collaboration with: Emilia Romagna Teatro Fondazione, Modena / With the support of: Programme Culture 2000 of the European Union CLT2002/A2/IT-2055 / Distribution: Gruppo Editoriale Minerva, RaroVideo

「Divina Commedia」 (2008) / Production of the Film: Societas Raffaello Sanzio, Compagnie des Indes, Arté

자생하는 비극

로메오 카스텔루치의 「자생하는 비극」은 총 11편의 작품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로, 아비뇽, 베를린, 런던 등 각각 11개 유럽의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제목에서 함의하듯, 이 작품은 그리스신화의 비극 구조를 뼈대삼아 마치 살아 움직이는 유기생물처럼 변화하고 진화하여 늘 다른 결말에 이른다. 각 도시의 언어적,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기후적 특성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주제가 파생되어 그 도시만의 비극이 탄생한다. 동시에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마치 생명체가 성장의 단계를 거치듯 한 작품은 다음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한 자양분으로 작용한다.

본 영상은 이탈리아 최고의 영상아티스트 크리스티아노 카를로니와 스테파노 프란체세티가 촬영, 작업하였다. 두 아티스트는 작품의 풍부한 감각과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에 주력하였으며 편집 과정에서 정서적 깊이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로메오 카스텔루치 특유의 웅장하고 회화적인 무대가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관객을 압도한다.

Tragedia Endogonidia's Film Cycle

Romeo Castellucci's Tragedia Endogonidia (2002-2004) is a unique work made up of eleven episodes, each of which refers to the city after which it is named. The term “endogonidia” refers to simple living organisms whose reproductive systems are such that they are able to reproduce ad infinitum, while the essence of the ‘tragedy’ is its irreversibly finite end. The video recording of Tragedia Endogonidia was directed by two of Italy's finest artists of the electronic image: Cristiano Carloni and Stefano Franceschetti. Their aim was to capture the exuberance of senses and images of the performances and then recreate the emotional and perceptual density of the artists at the editing stage.

3.20 [Wed] 7pm

「Divina Commedia」, Running time, 「Inferno」 96 min / 「Purgatorio」 + 「Paradiso」 73 min + 6 min

3.21 [Thu] 4pm

「Tragedia Endogonidia's Film Cycle」, Running time, 「Cesena, Avignon, Berlin, Brussels」 116 min 05 sec / 「Bergen, Paris, Roma, Strasbourg」 110 min 45 sec / 「London, Marseille, Cesena」 113 min 75 sec

Film Forum



부대 행사

Events

공연 장소

오카다 토시키키—작가와의 대화
3.23 [토] 3pm 공연 이후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인문극장2013’ 연계행사로 진행

로메오 카스텔루치—토크
3.23 [토] 5pm 공연 이후
HanPAC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다니엘 콕—작가와의 대화
3.26 [화] 8:30pm 공연 이후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홍성민—작가와의 대화
3.30 [토] 3pm 공연 이후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정은영—배우와의 대화
4.6 [토] 7pm 공연 이후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극단 호라—토크
4.7 [일] 3pm 공연 이후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야마시타 잔 & 안애순무용단—작가와의 대화
4.8 [월] 8:30pm 공연 이후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영진 리—작가와의 대화
4.13 [토] 3pm 공연 이후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인문극장2013’ 연계행사로 진행

포사이스 컴퍼니—렉처
[지각의 수행: 윌리엄 포사이스의 무용 연구]
4.13 [토] 2pm
성남아트센터 내 큐브플라자 3층 미디어홀

다큐나이트—렉처
4.17 [수] 9pm 상영 이후
아트하우스 모모

Okada Toshiki—Artist Talk
3.23 [Sat] after 3pm performance
Doosan Art Center Space111
A program of ‘Doosan Humanities Theater Series’

Romeo Castellucci—Talk
3.23 [Sat] after 5pm performance
HanPAC Arco Arts Theater Main Hall

Daniel Kok—Artist Talk
3.26 [Tue] after 8:30pm performanc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Sungmin Hong—Artist Talk
3.30 [Sat] after 3pm performance
Sogang University Mary Hall Grand Theater

siren eun young jung—Actress Talk
4.6 [Sat] after 7pm performance
Sogang University Mary Hall Small Theater

Theater HORA—Talk
4.7 [Sun] after 3pm performance
Sogang University Mary Hall Grand Theater

Yamashita Zan & Ahn Aesoon Dance Company—Artist Talk
4.8 [Mon] after 8:30pm performanc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Young Jean Lee—Artist Talk
4.13 [Sat] after 3pm performance
Doosan Art Center Space111
A program of ‘Doosan Humanities Theater Series’

The Forsythe Company—Lecture
[Performing Perception:
The Dance Research of William Forsythe]
4.13 [Sat] 2pm
Mediahall 3F Cubeplaza Seongnam Arts Center

Docu Night—Lecture
4.17 [Wed] after 9pm screening
Arthouse MOMO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다니엘 콕
재커리 오버젠
노경애
히라타 오리자
야마시타 잔 & 안애순무용단
서현석
마말리안 다이빙 리플렉스

국립극단 소극장 판—
마리오 가르시아 토레스
서영란
남동현
박민희
장현준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오카다 토시키키 / 첼피쉬
영진 리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홍성민
제롬 벨 & 극단 호라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김황 & 사라 마네테 & 마르코스 시모즈
정은영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포사이스 컴퍼니

송원아트센터—
남화연

아트하우스 모모—
양리 살라 + 시징맨
하룬 파로키 + 정희영

HanPAC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로메오 카스텔루치

필름포럼—
로메오 카스텔루치 스크리닝

서울 시내 모처 [추후 웹사이트 공지]—
김보용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Daniel Kok
Zachary Oberzan
Kyungae Ro
Hirata Oriza
Yamashita Zan & Ahn Aesoon Dance Company
Hyun-Suk Seo
The Mammalian Diving Reflex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Theater Pan—
Mario Garcia Torres
Yeong-Ran Suh
Dong-Hyun Nam
Minhee Park
Hyun-Joon Chang

Doosan Art Center Space111—
Okada Toshiki / chelfitsch
Young Jean Lee

Sogang University Mary Hall Grand Theater—
Sungmin Hong
Jérôme Bel & Theater HORA

Sogang University Mary Hall Small Theater—
Hwang Kim & Sara Manente & Marcos Simoes
siren eun young jung

Seongnam Arts Center Opera House—
The Forsythe Company

Songwon Arts Center—
Hwayeon Nam

Arthouse MOMO—
Anri Sala + Xijing Men
Harun Farocki + Hee-Young Chung

HanPAC Arco Arts Theater Main Hall—
Romeo Castellucci

Film Forum—
Romeo Castellucci Screening

Site to be announced—
Voyon Kim

The Embassy of Switzerland and the Swiss Cultural Fund Korea wish the best of success to the organizers of the Festival Bo:m 2013 and congratulate the Swiss Theatre HORA and Jérôme Bel on their Asian Premiere of the 'Disabled Theatre'.

주한 스위스 대사관과 스위스 문화기금은
2013 페스티벌 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스위스 극단 호라와 제롬 벨이 선사하는 <장애극장>의
아시아 초연을 축하 드립니다.



Back at Namsan 다시 남산으로

After two years of modernisation, the Goethe-Institut has reopened.
주한독일문화원이 2년 간의 개축공사를 끝내고 2013년 3월 6일
남산에서 재개관하였습니다.



Video mapping by Urbantainer for the reopening on March 6th, 2013 (Foto: OZAK / © Goethe-Institut)
얼반테이너의 라이트 인스톨레이션, 주한독일문화원 재개관 축하행사 2013년 3월 6일 (사진: OZAK / © Goethe-Institut)

Congratulations to Festival Bo:m and Seongnam Art Center for presenting the German production "Heterotopia" by THE FORSYTHE COMPANY from April 10th to 14th at Seongnam Art Center.

독일 무용단 포사이스 컴퍼니의 "헤테로토피아"가 페스티벌 봄과 성남아트센터에서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공연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주한독일문화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132
우편번호 140-901
Tel. + 82 2 20212800
www.goethe.de/korea



**GOETHE
INSTITUT**
Sprache. Kultur. Deutschland.



Julia & Remo, Photo © Michael Bause

티켓 정보

Ticket Info.

11만원
포사이스 컴퍼니
The Forsythe Company

[R] 5만원 / [S] 4만원
로메오 카스텔루치
제롬 벨&극단 호라
[R] 50,000 / [S] 40,000
Romeo Castellucci
Jérôme Bel & Theater HORA

3만원
오카다 토시키 / 첼피쉬
다니엘 콕
재커리 오버젠
영진 리
Okada Toshiki / chelfitsch
Daniel Kok
Zachary Oberzan
Young Jean Lee

2만원
서영란
홍성민
김황 & 사라 마네펀테 & 마르코스 시모즈
남동현
노경애
박민희
정은영
야마시타 잔 & 안애순무용단
서현석
장현준
Yeong-Ran Suh
Sungmin Hong
Hwang Kim & Sara Manente & Marcos Simoes
Dong-Hyun Nam
Kyungae Ro
Minhee Park
siren eun young jung
Yamashita Zan & Ahn Aesoon Dance Company
Hyun-Suk Seo
Hyun-Joon Chang

10,000
마리오 가르시아 토레스
김보용
히라타 오리자
남화연
Mario Garcia Torres
Voyon Kim
Hirata Oriza
Hwayeon Nam

7,000
Anri Sala + Xijing Men
Harun Farocki + Hee-Young Chung
Romeo Castellucci Screening

Admission Free [prior registration required]
The Mammalian Diving Reflex

7천원
양리 살라 + 시징맨
하룬 파로키 + 정희영
로메오 카스텔루치 스크리닝
얼리버드 30% 할인-3월 2일 자정까지
할인 제외 작품: 양리 살라 + 시징맨
하룬 파로키 + 정희영
20% 할인: 오카다 토시키
포사이스 컴퍼니
영진 리

무료 [사전 신청 요]
마말리안 다이빙 리플렉스
패키지 50% 할인-6개 이상의 묶음 예매시
할인 제외 작품: 포사이스 컴퍼니
양리 살라 + 시징맨
하룬 파로키 + 정희영

단체 30% 할인-
10명 이상 단체 예매시 (전화문의)
30% Early-bird discount-by midnight of March 2
Not included: Anri Sala + Xijing Men
Harun Farocki + Hee-Young Chung
20% discount: Okada Toshiki
The Forsythe Company
Young Jean Lee
50% Package discount-for reservation of 6 or more shows
Not included: The Forsythe Company
Anri Sala + Xijing Men
Harun Farocki + Hee-Young Chung
30% Group discount-
on group reservation of 10 or more persons (phone inquiry)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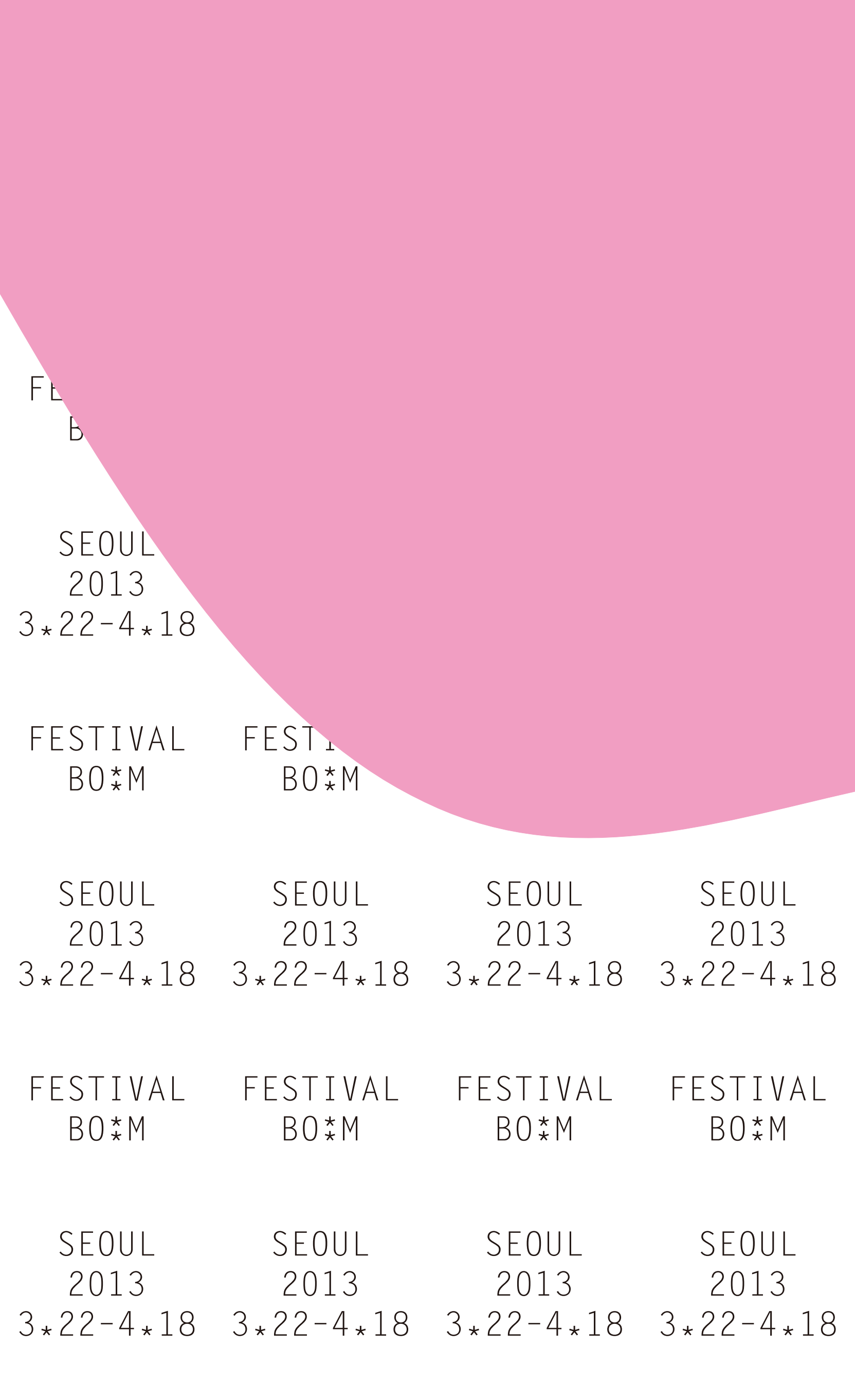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SEOUL 2013

3*22-4*18

SEOUL 2013

3*22-4*18

SEOUL 2013

3*22-4*18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L 2013

3*22-4*18

SEOUL 2013

3*22-4*18

SEOUL 2013

3*22-4*18

SEOUL 2013

3*22-4*18